책을 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인류의 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입니다.》

아득한 원시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민대중은 끊임없는 창조적활동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이룩된 찬란한 문화와 거창한 창조물들에는 무한한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불굴의 노력과 함께 뛰여난 지혜가 깃들어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류력사는 그대로 지혜의 박물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를 밝혀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려보게 하였으며 자기의 념원과 목적을 실현할수 있는 옳바른 방도도 찾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혜는 또한 어려운 투쟁속에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몇마디 말로써 적수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고난과 시련도 웃음으로 이겨낼수 있게 하였습니다.

련속도서 《지혜의 박물관》은 인류의 력사와 문화발전에서 발휘된 사람들의 창조적지혜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사실자료들과 일화들, 명언과 유모아들을 부류별로 갈라서 편집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인민대중이야말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서 력사와 문화의 창조자라는것을 더 잘 알게 될것입니다.

모든 청소년학생들은 인류가 이룩한 지혜의 보물고를 잘 알고 내나라, 내 조국땅에서 사회주의리상을 꽃피우는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해야 할것입니다.

편　집　부

차　례

상　식

유 모 아

사라졌던 문명의 지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아득한 옛날이 어떠했을가 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원시시대나 고대시대를 미개한 암흑시대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발전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고 밝혀짐으로써 인류력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민대중의 거창한 창조의 력사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사라졌다가 다시 발굴된 옛문화를 돌이켜보면 찬란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잘 알수 있다.

의혹속에 잠겨있던 알타미라동굴벽화

알타미라동굴벽화는 구석기시대 원시인들이 창조한 문화유적으로서 그자체가 높은 고고학적가치를 가지고있지만 이 원시유적을 놓고 고고학자들속에서 벌어진 의혹과 론쟁으로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1879년 11월 에스빠냐의 어느 마을의 한 사람이 5살나는 딸 마리아를 데리고 동굴로 놀러 갔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날 왜서인지 10년전에 있었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면서 그 동굴에 한번 가보고싶은 충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자기 집 하인이 개를 데리고 여우사냥을 갔던 때의 일이였다. 도망치는 여우를 쫓아 작은 구멍으로 들어간 사냥개가 오래동안 나오지 않기에 하인은 그 비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보았다. 그런데 구멍안은 깜짝 놀랄만큼 신기한 그림들이 있는 넓은 동굴

이였다. 하인은 여우를 사냥할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림들을 돌아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돌아왔다. 이 동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주인은 확인해보지도 않고 하인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돌아와서 허풍까지 친다고 되게 욕하고는 그를 내쫓았다고 한다.

그후 별다른 생각이 없이 지내다가 꼭 10년이 되는 그날 새삼스럽게 하인의 말이 떠올라 동굴에 가보았다는것이다.

동굴에 들어선 딸은 키가 작으므로 허리를 구부릴 필요도 없이 신이 나서 동굴안을 돌아다니였다. 딸 마리아가 한곳에 이르러 문득 천정을 바라보니 아름답게 채색한 한마리의 들소그림이 한줄기의 빛을 받아 움직이는것 같지 않는가. 당장 뛰여나와 뿔로 받을것만 같은 들소그림에 딸은 놀라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가 다가와 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는 들소뿐아니라 야생말, 사슴, 메돼지 등의 자태가 실감있게 그려져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살아움직이는듯한 생동한 그림이였다.

그후 이 동굴벽화의 발견자는 하인이 아니라 5살의 어린 소녀라고 인정되였고 그는 인류력사상 특기할만한 발견을 한 가장 어린 나이의 사람이라고 평가되였다.

알타미라동굴벽화가 단서로 되여 그후 많은 동굴벽화들이 발견되였지만 그가운데서도 이 동굴벽화의 들소와 북극사슴, 털코끼리는 특별히 뛰여난 걸작이였다.

그 당시 아름다운 채색으로 짐승의 륜곽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바위천정의 굴곡까지 재치있게 리용하여 살아숨쉬는듯이 형상한 알타미라의 동굴벽화를 두고 이 그림을 몇만년전의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그렸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굴벽화가 그것이 발견된 당시인 19세기의 그림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대그리스미술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것이라고도 하였다.

동굴벽화가 발견된 1년후인 1880년 뽀르뚜갈의 수도 리스봉에서는 벽화의 고고학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나라 학자들의 국제적인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있다는 고고학자, 력사학자는 물론 유명한 화가들도 참가하였다. 그런데 이

렇게 훌륭한 벽화를 몇만년전의 원시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릴수 있었겠는가 하는것이 참가자모두의 한결같은 의견이였다. 이 동굴벽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그후 20여년의 시간을 더 요구하였다.

이러한 실태는 그후에 련이어 발견된 동굴벽화가 공개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알타미라동굴벽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들의 회합이 있었던 그 다음해였다. 한 고고학자는 동굴벽화를 찾기 위한 발굴에 나섰다. 그의 고심어린 노력은 헛되지 않아 12마리나 되는 말과 소를 형상한 하나의 동굴벽화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알타미라동굴벽화의 실례를 통하여 아직 자기의 발견이 사회적인정을 받을수 없다는것을 간파한 그는 이 유적의 발표를 서두르지 않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어느 한 목사는 1881년에 동굴벽화를 발견하고 1년간 동굴퇴적층에 대한 고고학적발굴을 진행하였다. 퇴적층에서는 구석기시대후기의 유적이 발견되였고 바로 이 층에서 털코끼리가 그려져있는 뼈를 발견하였다. 고고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목사였지만 동굴벽화와 털코끼리를 형상한 선각화가 구석기시대 후기에 그려진 회화작품이라는것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알타미라동굴벽화가 사회적인정을 받지 못한 후과였다고 말할수 있다.

1895년에 한 청년이 어떤 동굴을 혼자서 탐사하려는 결심을 하였다. 그가 마음을 조이며 동굴속으로 약 200m정도 전진하였을 때였다. 어둠을 밝히는 불뭉치의 화광속에 산양, 말 등이 그려져있는 벽화가 천정과 벽에 나타났다. 청년을 놀라게 한것은 그림보다도 이렇게 깊은 곳에서 그것도 발판을 몇단씩 설치해야 닿을수 있는 천정에 그림을 그린 사람은 과연 누구일가 하는것이였다.

1901년 9월 16일에 프랑스 빠리과학원에서는 동굴벽화에 대한 학술보고가 있었다.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이 벽화들이 구석기시대 후기의 원시인들에 의하여 창작되였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학자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히 리성적으로 사고하였다.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이 지역에서 없어진 털코끼리나 코뿔소 그리고 동굴사자와 같은 짐승들을 그것들이 살아있

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릴수 없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던것이다. 너무도 단순하고 응당한 문제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의심을 가졌던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당시 유명한 인류학자의 한사람은 원시인들이 그처럼 훌륭한 벽화를 창작할수 없다고 생각한것은 과학연구사업에 한생을 바쳐온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큰 착오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옛사람들의 예술적재능을 과소평가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동굴벽화의 참된 가치가 밝혀지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것은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왜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였는가는 똑바로 밝히지 못하였고 밝힐수도 없었다. 문제는 사람의 본질과 본성에 대한 리해의 부족에 있었다.

흔히 고고학자들은 사람의 발생을 뇌수용적의 크기나 손과 발의 발달정도, 골격과 근육의 변화와 같은 생리학적징표에서 찾는다. 그리고 로동도구와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인류의 문명도 진화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고있다. 이렇게 보면 현대인과 원시인들사이에는 엄청난 질적차이가 있게 되고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리해할수 없게 된다.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에 있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원시사회와 원시문화, 원시인들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사하라사막에 묻힌 원시문화

오늘 황막한 사하라사막은 아프리카대륙북부의 대부분지역을 차지하고있다. 이 넓디넓은 사막의 한계를 확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홍해와 대서양사이의 동서로 5 700㎞, 아틀라스산맥으로부터 수단의 사헬까지 북남으로 1 500㎞에 걸치는 사막은 거의 860만㎢의 넓이를 차지하고있다.

태고시기 사하라에는 지금과 달리 큰 호수들과 강하천들이 많았

고 비도 동식물들이 번성하는데 충분하게 내렸다. 신석기시대까지 여기에는 몸집이 큰 동물들이 많이 살고있었다. 당시 사하라는 반수림지대였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유물의 하나가 지금 니제르의 니아메박물관에 보관되여있는 나무화석이다.

신석기시대에 사하라에는 첫 원시공동체사회의 주민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열매를 채집하고 사냥도 하고 농사를 짓고 짐승도 기르면서 독특한 석기시대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런데 그후 사하라에는 건조기가 계속되면서 비가 적게 오고 샘들과 강물이 말라들어 사막화가 진행되였다. 사막화와 함께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먹고 살던 동식물들은 이동하거나 멸종되였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기후가 더 온화한 주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였다.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속에서 창조된 그들의 문화는 광막한 사막의 모래속에 파묻혀 수천수만년동안 잠자고있었다. 최근에 와서 아프리카면적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넓은 사막지대에서는 돌과 뼈로 만든 도구들과 보석, 여러가지 치장감, 그림, 조각품 그리고 낟알, 식물, 동물화석들이 발굴되고있다. 옛날의 강줄기들을 따라 솟아있는 절벽이나 바위들에서 석기시대 그림유적들이 발견되였다. 이 예술품들은 대체로 당시에 번성했던 동물들을 형상하고있으며 사람들의 로동과 휴식, 짐승 혹은 적들과의 대결, 자연현상에 대한 위구심과 공포, 종교례식, 유희 등을 형상하고있다.

그중에서 특히 유명한것은 다씨리의 바위벽화이다.

사하라 다씨리유적의 바위벽화는 B.C.5000년 이전 석기시대 유적이다. 벽화에 그려진 사람들의 신체장식은 지금도 닐강상류와 중앙아프리카의 주민들이 하고있는것과 비슷하며 따라서 흑인주민들이 그린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흑인들의 분포령역이 지금보다 북쪽으로 더 확대된다. 다시말해서 흑인들은 오늘처럼 아프리카대륙의 사하라이남지역에서만 산것이 아니라 대륙의 북쪽 지중해연안가까이까지 퍼져서 살았다는것으로 된다. 그러던것이 대륙의 사막화와 함께 그 거주지역이 남쪽으로 압축된것이다.

이 그림에 반영되여있는 주민들의 문화수준은 당대의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B. C. 5000년경부터 이 지역에서는 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그림에는 코끼리, 물소, 기린 등과 함께 하마와 같은 물살이동물과 물고기류들이 그려져있다. 특히 통나무배를 탄 사람들에게 쫓기우는 하마 세마리가 그려져있는것으로 보아 당시의 주민들이 큰 동물을 사냥하고 물고기도 잡아서 식량으로 했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도 있다. 그림에 나타난 인물형상을 보면 농사는 주로 녀성들이 지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에짚트배의 그림도 여러개 있었으며 그 배머리에 에짚트의 《주와 군》의 휘장이 그려져있는것으로 보아 에짚트와 교류가 있었다는것도 암시되고있다.

이 사하라사막에 묻힌 문화를 누가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는 명확한 대답은 내놓지 못했지만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간 이 시기 사람들의 창조적활동과 생활모습을 어느 정도 추측할수 있다.

한때 사하라의 바위벽화가 에스빠냐 레반떼지방의 바위벽화와 류사한것으로 하여 레반떼로부터 사람들이 이주하여 사하라에 목축을 도입했다는 견해도 있었다. 최근에 이러한 유럽본위의 억설을 부인하고 아프리카의 농경문화가 자체의 자연기후적조건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생발전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인것으로 되였다. 아프리카는 가장 오랜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 지역의 력사도 오래다.

에짚트문명을 별개로 하더라도 사하라이남의 흑인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것은 B. C. 3000년경부터라고 보고있다. 최초의 작물은 밀레트(잡곡의 일종)였으며 서아프리카에서는 벼도 심었다. 이러한 작물들의 기원은 바로 아프리카이며 더 한정한다면 세네갈로부터 닐강상류에 이르는 열대초원지대였다. 학자들은 아프리카흑인들의 원시공동체사회의 경제토대는 B. C. 3000년부터 B. C. 2000년경까지 완성되였고 고대에짚트와 같은 노예사회로 넘어갈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이 마련되여있었다고 보고있다. 이 력사적전환을 가로막은것이 주요하게 사하라사막이였으며 아프리카의 특수한 자연지리적조건이였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아프리카의 여러 종족들은 좀 늦기는 했어도 계급사회로 이행하였고 동북부와 남부에서는 철기문화가 창조되였다.

다씨리의 바위벽화는 인류문명과 문화의 발전은 인종에 관계없으며 모든 인종, 민족, 종족들이 자기들의 자연지리적 및 사회력사적조건에 맞게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여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스톤헨지의 수수께끼

스톤헨지는 영국의 윌트셔주 솔스베리평원에 있는 신석기시대 말기－청동기시대의 거석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약 11만㎡의 부지면적에 무게가 50t가량 되는 수많은 풀색의 바위돌들로 구성되여있다.

력사적으로 보면 신석기시대 말기－청동기시대라고 하면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계급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거석문화》가 창조되였다. 거석문화란 커다란 돌들로 이루어진 건축물로 대표되는 문화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의 여러곳에 남아있는 고인돌과 선돌들은 거석문화의 대표적인 유적들이다. 거석문화에는 당시에 산 사람들의 사회경제관계와 사상, 종교, 기술, 생활방식 등 다양한 분야가 반영되여있다.

B. C. 3100～B. C. 2000년사이에 세워진 스톤헨지는 유럽에서 유명한 거석문화유물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여있다.

스톤헨지에서 가장 놀라운것은 중심의 거석들인데 약 2m 너비에 4m의 높이를 가진 30개의 거석들이 직경 30m의 원을 이루고 서있으며 그우에 돌들을 가로질러 둥근 고리를 형성하였다. 지금은 이 돌고리의 일부만 남아있다.

이 돌고리안에 5개의 궁륭식돌문(삼석구조물이라고도 한다.)이 있는데 지금 3개가 온전하게 남아있다.

매개 문은 높이가 6～7.5m이고 무게가 50t이 되는 돌기둥을 《문틀》로 세우고 그우에 무게가 10t이나 되는 돌을 얹혀놓았다.

스톤헨지의 바깥으로 직경이 90m인 고리형흙도랑과 흙둔덕이 있고 흙둔덕안쪽에 바싹 붙어서 일정한 거리간격으로 56개의 둥근 구뎅이들이 파져있다.

스톤헨지로부터 북쪽으로 30㎞ 떨어진 곳에 아이프베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깊이 약 9m의 분지안에 98개의 가공하지 않은 돌기둥들이 곧추 서있다. 이 거석들은 스톤헨지유적에 포함되여있다.

스톤헨지유적이 유명한것은 거대한 바위돌들을 움직여 견고한 건축물을 일떠세웠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이 건축물은 옛사람들의 전체와 부분의 비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구성능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높은 예술적감각과 수학적재능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이다. 이로 하여 스톤헨지는 인류건축학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 거대한 돌건축물은 당시 사람들의 천문학지식과 그 응용정도를 알수 있게 한다.

사석고리의 주축선인 돌기둥을 지나는 길은 하지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일직선상에 놓인다.

또한 두개 돌기둥의 련결선은 동지날의 해지는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거석건축물을 왜 일떠세웠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이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는 없고 단지 추측해볼따름이다.

어떤 학자는 음성학실험에 근거하여 스톤헨지를 구성하고있는 돌기둥들이 메아리를 정확히 반사할수 있으며 그것이 중심에서 공명효과를 일으켜 크게 들린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이곳이 고대시기 제사장소였으리라고 추측하였다.

또 어떤 과학자는 관찰을 통하여 매일 해가 질 때면 바위돌들과 주위의 지면에 특수한 그림자가 생긴다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스톤헨지의 중심원을 이루는 궁륭문은 모두 태양이나 별자리를 향하고있다. 이로부터 스톤헨지가 정밀한 천문관측대였을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밖에 어떤 과학자는 스톤헨지주변에서 옛무덤들이 발굴되고 순장품들이 나오는것으로 보아 이곳이 고대시기 성지였을것이라고 보고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우주인들의 비행접시를 보았다고 말한것으로 하여 이곳이 다른 행성 사람들이 지구에 세운 기지라고 하는 억측도 나왔다.

총적으로 스톤헨지는 인류의 원시문명과 그때 사람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보여주는 경이적인 유적이다. 이 유적은 많은 사실들을 말해주고있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실들이 감추어져있다고 알려주고있다.

이스터섬의 돌조각상에 대한 가설

이스터섬은 태평양동부의 외로운 섬으로서 칠레에서 서쪽으로 3 600㎞ 떨어진 바다에 있다. 섬은 3각형모양이며 길이 24㎞, 최대너비 17.7㎞, 면적은 100여㎢이다.

섬에는 여러개의 사화산들이 있으며 그중 세개의 비교적 높은 화산이 섬의 세 구석에 솟아있다.

이스터섬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것은 크기가 각이한 조각상들이 섬의 일대 풍경을 이루고있는것이다.

섬에는 모두 합하여 600여개의 큰 돌조각상이 있는데 모두 다리가 없는 반신상이다. 조각상들은 대체로 높이 7～10m, 무게 30～90t이고 모두 담황색의 화산돌을 쪼아 만들었다.

외형은 비슷비슷하며 어떤것은 타원형의 모자를 쓴것이 엄숙하기도 하고 신비한 색채를 띠기도 한다.

이 석상들을 만든 사람들, 만든 년대, 만든 원인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곳으로 운반되여왔는가 하는것은 현재까지 줄곧 수많은 관광객들과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맴도는 수수께끼이다.

1722년 4월 5일 네데를란드해군대장 야꼬브 로그문드는 100여명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거느리고 항해하던중 이 신비한 섬을 발

견하였다. 이날은 우연히 그리스도교의 부활절이여서 그 섬을 《이스터섬》이라고 이름지었다.

섬의 석상들은 대다수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세워져있는데 어떤것은 수풀속에 곧추 서있고 어떤것은 땅우에 넘어져있고 어떤것은 제단우에 세워져있다. 일부 석상이 쓰고있는 모자는 붉은 암석을 조각하여 만든것으로서 그 모자 하나의 무게만도 10t이 넘는다.

어떤 석상의 몸에는 입묵같은 부호가 새겨져있다. 이밖에 이 거대한 석상들보다 두배나 더 큰 석상들도 있으나 대부분 미완성품들이다.

이 석상들의 얼굴은 표정이 대단히 풍부하며 눈은 특별히 윤기나는 흑요석이나 반짝거리는 조개껍질을 박아넣어서 아주 생동하다.

석상들의 이마는 대체로 좁고 길며 코마루는 높고 눈확은 우묵하며 입은 삐죽이 내밀고 큰 귀는 어깨까지 처져있고 팔은 배에 붙어있다.

모든 석상은 바다를 향해 랭담한 표정으로 위엄있게 서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출전을 앞둔 무사들같이 아주 엄숙하다.

탐사과정에 이 석상들의 재료로 된 채석장을 발견하였는데 섬의 라코크화산부근에 있었다. 이곳에는 오늘까지도 채 완성되지 않은 300여개의 조각상들이 남아있으며 그 대부분은 응회암을 조각하여 만든것들이다. 1951년 고고학자들은 채석장에서 무디여진 수많은 현무암돌도끼들을 찾아내여 이 돌도끼들이 석상을 만든 주요도구였다고 추측하였다.

무게가 90t이나 되는 이 석상들을 만드는데 얼마만한 로력과 시간이 들었겠는가?

20세기 50년대 노르웨이의 한 고고학자는 6명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돌도끼로 석상을 만들도록 했으나 일이 너무 힘들고 막연하여 3일만에 그만두고말았다. 그들의 작업과정을 놓고 추측하면 6명이 12～15달 걸쳐 조각상 하나를 완성할수 있다. 하지만 이 석상들을 운반하는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보았다.

섬에는 나무가 한대도 없고 땅우에 풀들이 드문드문 있으며 비

물이 고인 세개의 작은 호수가 먹는물의 유일한 원천이다. 거인석상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자연환경에서 생존할수 있었는가?

학자들은 한때 고도로 발전하였던 문명이 사멸되였다고 보면서 그 원인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가설을 세웠다.

그중 한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략 B. C. 1200년 폴리네시아인들은 부락과 종족들사이의 충돌과 전쟁을 피해 배를 타고 이 섬에 와 새 거처지를 정하였다. 그들은 집짐승들과 각종 농작물의 종자들 그리고 생활필수품들을 가지고왔다. 그때 섬에는 아열대수림이 우거져있었고 각양각색의 잡초들이 자라고있었다. 나무들은 현재 섬에서 사멸된 종려나무들이였다.

일정한 세월이 흐른 후 섬의 인구가 늘어나고 복잡한 사회구조와 관계를 가진 지역적문명이 형성되였다. 매 부락들에는 자기의 두령과 신관이 있었다.

하지만 섬에서는 부락간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매 부락의 두령들과 신관들은 자기들이 다른 부락에 비해 강하다는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자기들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또 적들을 위협하기 위해 모두는 경쟁적으로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석상을 크게 만드는 부락이 실력이 센 부락이였다. 약하고 가난한 부락들이 만든 석상들은 다른것들에 비해 작았다. 이 석상들을 운반하기 위해 그들은 나무들을 대량적으로 찍어 통나무굴대로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섬의 나무들은 모조리 없어지고 섬의 생태환경이 지금과 같이 변화되였다.

또 다른 하나의 가설은 조각상들이 모두 바다를 향해 서있는것은 구원에 대한 종교의식을 반영한다는것이다. 이 섬에 도착한 주민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세대교체가 진행되였다. 주민수는 늘어났으나 새 세대들속에서는 배를 무을줄 아는 기술과 항해술을 아는 사람이 없어졌으며 섬에서 자라던 나무들도 다 없어졌다.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서 고독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신에게 자기들을 구원해줄것을 바라게 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애타는 념원을 석상에 새겨 세워놓으면 신으로

부터 구원받게 되리라고 믿었다.
이 석상들은 바로 그렇게 되여 세워진것이라고 한다.
물론 또 다르게도 추측해볼수 있다. 고대사람들이 발휘한 지혜는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를 남겨놓고있다.

지구의 한쪽끝에서 꽃펴난 원시문화

카카두국립공원은 오스트랄리아북부 다윈시 동쪽 200㎞되는 곳에 자리잡고있다. 이곳은 본래 원주민들의 자치구로서 1972년 이전에는 지구상에서 외부세계와 격페된 원주민들의 마지막거주지였다.
1979년에 이곳은 국립공원으로 되였다.
이 공원의 면적은 1 980㎢로서 잘 보존된 자연생태의 원시림과 각종 희귀한 야생동식물들이 있다. 이 공원안에는 오스트랄리아대륙 최초의 인류문화유적인 동굴벽화가 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에 유명하다. 그리하여 오늘 카카두국립공원은 원시자연유산과 풍부한 인류문화유산이 결합된 이름난 관광지로 되고있다.
카카두국립공원의 바다가 벼랑에는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7 000여개소에서 1만 8000년전이래로 원주민들이 그린 바위벽화들이 발견되였다.
이 벽화들을 그린 색감은 사냥한 동물의 피와 여러 색갈의 광석가루들을 혼합한것으로서 오늘까지 색이 날지 않았다.
그림의 내용은 사냥장면, 생활도구, 신화와 전설 등 주제의 폭이 넓으며 특히 벽화의 동물종류는 그림을 그린 넌대에 따라 변하였다. 례를 들어 최초의 벽화는 마지막빙하기에 그린것으로서 주머니쥐, 오스트랄리아타조, 이미 멸종된 거대한 동물들이 그려져있다.
빙하시기는 약 6000여년전에 끝나고 바다수면이 올라가 벼랑아래의 평원은 바다와 만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벽화에는 주로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그려져있다. 척추동물의 내부구조를 그린 벽화들도 많다.

대부분 벽화의 내용은 이곳 원주민선조들의 각이한 시기의 생활내용, 생산방식, 동물숭배, 종교의식 등을 반영하고있다.

이 벽화들은 오스트랄리아원주민들의 력사와 그들의 생활, 예술, 종교 등을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이 걸작품을 창조한 원주민들의 생활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카카두국립공원에서 사람들이 감탄하는것은 완전하게 보존된 자연생태의 원시환경과 아름다운 경치이다. 이곳의 식물종류는 1 600종이 넘으며 그중에는 레몬유카리나무, 큰잎단벗나무, 남양삼나무 등 오스트랄리아의 특산종이 많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공원안에는 약 58종의 보호가치를 가진 특산종 식물들이 있다고 한다.

공원에는 64종의 오스트랄리아특산포유동물들이 있다. 이것은 오스트랄리아대륙에 고유한 포유동물의 4분의 1이 넘는다.

또한 75종의 파충류가 있는데 그중에는 바다물에서 사는 길이 4～6m인 사나운 악어도 있다. 이 유명한 바다악어는 사람들이 그 가죽을 얻으려고 대량적으로 잡아 거의 전멸될번 했다가 최근에 보호를 받고 점차 그 마리수가 늘어나고있다.

카카두국립공원의 새종류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데 오스트랄리아 새종류의 3분의 1이 년중 일정한 시기 이곳에 와서 생활한다. 새들도 역시 다른 지역에서 볼수 없는 특산종이 많다.

카카두국립공원의 자연상이 이렇듯 다양하고 독특한것은 오스트랄리아대륙이 다른 대륙들과 멀리 떨어져있고 기후가 따뜻할뿐아니라 육식동물들이 적기때문이다.

이곳 원주민들의 생활도 역시 대륙과 멀리 떨어져서 다른 민족들과의 교류가 없이 독특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이곳의 바위벽화들은 그 내용과 예술적수준에서 같은 시기에 그린 다른 지역의 벽화들보다 조금도 짝지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스트랄리아대륙에서는 인류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 그러면 이러한 원시문화를 창조한 주민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카카두는 오스트랄리아원주민인 카카두족의 고향이다. 카카두국

립공원은 바로 이 부족의 이름으로 명명된것이다. 이 공원의 동쪽 강언덕에서 2만 3000년전의 원시유적이 발견되였다.

그들의 선조는 4만년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하여왔는데 처음에는 바다를 건너왔고 그후 빙하시기에 바다물면이 낮아졌을 때는 뉴기니아로부터 륙로를 따라 이곳에 왔다. 그들은 이곳에서 자기들의 독특한 석기문명을 발전시켰다.

토착주민인 카카두족이 계승한 문화는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오랜 문화의 하나이며 이 문화는 촌락형식의 정착생활과 농경을 위주로 한 생산방식이 대표적이다.

카카두족을 비롯한 오스트랄리아원주민들은 청동기를 발명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석기시대 원시공동체사회의 문화를 오래동안 보존하고있었다.

그러던것이 백인식민주의자들이 이주해옴에 따라 많은 부족들이 전멸당하고 그들의 문화는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카카두국립공원의 바위벽화들은 인류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찬란한 문화가 꽃펴났으며 그 모든 문화유산은 인류공동의 재부로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라진 마야문명

신비한 색채로 가득찬 마야인들의 기원과 그들이 창조한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다.

마야인들은 지금으로부터 5000여년전에 메히꼬와 중앙아메리카의 과떼말라 태평양연안에 나타났으며 그때부터 자기의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 중앙아메리카지역에 찬란한 고대문화를 창조하였다.

마야문명은 약 B.C.2500년경에 형성되였으며 그 범위는 메히꼬남부와 유까딴반도, 과떼말라와 온두라스, 벨리제일대의 넓은 지역을 포괄한다.

고대마야인들은 화전농업에 종사하면서 강냉이, 줄당콩, 호박,

도마도, 근채, 목화 등을 재배하였으며 칠면조와 개도 기르고 사냥과 물고기잡이도 하고 꿀벌도 치였다.

마야인들은 웅장한 석조건물들이 있는 도시들을 일떠세웠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도시들은 100여개나 된다.

그러나 통일적인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지역적인 도시국가들로 존재하였다.

마야인들의 사회에서 지배층은 군사귀족과 신관들이였다.

마야인들에게는 씨족관계가 남아있었으나 노예제도도 발전하였다.

도시들에는 수공업생산이 발전하였으며 많은 상인계층이 있었다.

특히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것은 마야인들이 창조한 과학문화와 예술이다.

◦ 상 식 ◦

마 야 문 자

마야문자는 아메리카주의 마야민족이 기원전후한 시기에 창조한 상형문자로서 5세기 중엽에 널리 쓰이였다. 마야인들은 아메리카주에서 유일하게 문자기록을 남긴 민족이다.

마야의 상형문자는 타원이 위주이며 글자의 선은 대체로 도형의 기복변화에 따라 완만하고 미끈하다. 현재 제일 오래된 마야문자는 과떼말라북부수림속의 이른시기 마야의 피라미드안에서 발견되였다. 이곳의 문자는 모두 10개로서 니회암판에 새겼는데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전 대략 B. C. 3～B. C. 2세기사이이다.

현재 남아있는 마야의 상형문자는 돌비석, 신전 및 묘실의 벽에 새겨져있는것이며 그릇과 조개껍질에 새겨진것도 있다. 그밖에 마야문자는 중국의 붓과 비슷한 공구로 도자기, 나무속껍질, 이긴 사슴가죽에 쓰기도 했다. 마야문자의 총수는 상당히 많다.

마야문화는 인까문화와 공통점도 있으나 그에 비하여 수학, 의학, 천문학 등 지적면에서 더 높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마야인들은 자기들의 상형문자를 창조하고 리용하였다. 마야인들은 아메리카 인디안주민들속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의 문자를 가지고 력사적사변들과 종교신앙을 기록하였으며 문화교류도 진행하였다.

마야인들은 수학에서 독특한 20진법을 쓰고 《령》이라는 개념을 알고 리용하였으며 의학기술을 발전시키였다.

그들은 천문대를 건설하여 천체를 관측하고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1년을 365일로 하는 태양력에 기초한 력법을 사용하면서 그에 따라 영농기간을 정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그들은 비와 바람을 숭상하였다.

마야의 고대건축물들에서 기본은 신전들과 피라미드이다.

마야인들의 건축물들은 웅장한 규모와 정교한 기술, 뛰여난 조형미로 하여 다른 지역의 고대건축물들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

건축물들에 남아있는 벽화들은 원색의 색조로 화려하게 대조되면서 풍부한 환상과 형상수법을 보여주고있으며 또한 장식효과가 매우 높다.

마야인들의 조각은 신전들의 벽과 비석에 돋을새김을 하고 여기에 상형문자들을 배합하였다. 금과 은, 돌, 진흙으로 각종 신들과 우상들을 형상한 조각품들과 함께 질그릇과 공예품에도 조각기법이 도입되여있었다.

공예품들은 재료와 색감, 형태가 다양하다.

마야인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신화와 전설, 노래와 춤을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마야문화유적들이 16세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면서 무참하게 파괴되였다.

고대마야인들의 관념에서 력사는 천만년을 단위로 끝없이 륜회하며 인생은 아침에 잠간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것이였다.

그러나 오늘 남아있는 마야인들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민족의 운명과 문화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자각하고 선조들이 이룩한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하고있다.

치첸이짜옛성

치첸이짜옛성은 메히꼬의 유까딴주 남부에 자리잡고있는 고대마야문화의 대표적유적이다. 유적은 남북길이 약 3㎞, 동서너비 2㎞안에 수백개의 건축물이 남아있다.

건축물가운데서 유명한것은 피라미드, 신전, 천문대 등이다.

이곳의 피라미드를 꾸끄르칸트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마야어로 날개달린 뱀의 신을 꾸끄르칸트라고 한다.

농업에 종사하고있던 마야인들은 꾸끄르칸트가 자기들에게 비를 가져다주며 농작물이 자라게 하고 풍년을 마련해준다고 믿고있었다. 중앙아메리카의 여러 인디안종족들은 모두 이 날개달린 뱀신을 숭배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피라미드들을 건설하였다.

왕의 무덤으로 건설된 고대에짚트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신에게 제사지내는 신전이라는 점에서 마야인들이 건설한 피라미드의 특색이 있다. 오직 한개 메히꼬의 빠룬크피라미드만이 B.C. 7세기에 건설된 빠룬크통치자의 무덤이다.

B.C. 500～B.C. 475년사이에 건설된 꾸끄르칸트피라미드는 치첸이짜유적의 중심에 자리잡고있다.

피라미드는 한면의 길이가 55.3m인 사각형의 밑단우에 계단식으로 쌓아졌으며 그 높이는 29m이다. 그리고 탑꼭대기에 9개 층으로 된 높이 6m의 신전이 있다.

피라미드 네면의 계단은 각각 91개이므로 모두 364개의 계단이 있는데 꼭대기의 신전을 한개의 계단으로 보면 365개로서 매개계단이 1년의 하루를 표시한다. 춘분과 추분날에는 해가 뜨거나 질때 피라미드의 모퉁이가 북쪽면계단에다 날개달린 뱀신의 모양을 한 그림자를 던지며 그림자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

고대중앙아메리카의 도시국가들에서는 낡은 피라미드우에 더 크고 웅장한 피라미드를 덧세우는 관례가 있었다. 꾸끄르칸트피라미드도 바로 이런 건축물이다. 고고학자들은 이 피라미드의 북쪽

면계단에서 입구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안에 감추어진 또 하나의 피라미드를 보게 되였다.

그들은 낡은 피라미드의 계단을 따라 뻗은 통로로 해서 바깥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올라갈수 있었다.

꼭대기에는 붉은 색칠을 하고 옥을 박아넣은 꾸끄르칸트돌조각상과 아름다운 아메리카범가죽으로 만든 왕관이 있었다.

치첸이짜유적에서 또 유명한것은 유적의 북쪽에 자리잡고있는 천문대이다.

천문대는 4각형의 단우에 타원형으로 쌓아진 돌건물이다. 건물안에는 라선형의 계단이 있어 오르내리게 되였다.

천문대의 문은 해빛이 들어와 안에 생기는 그림자로 하지와 동지를 판단할수 있게 설치하였으며 건물꼭대기에는 돌로 만든 물그릇을 놓고 거기에 반사되는 별빛으로 별자리를 관찰하였다. 마야인들이 일찍부터 아주 정확한 일력체계를 세운것을 보면 그들의 천문관측과 계산이 정확했다는것을 말해준다.

치첸이짜유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것은 또한 무사신전이다. 신전의 높이는 10m, 너비는 40m이다.

신전의 벽들에는 무사들의 전투와 승리를 형상한 벽화들을 채색으로 그렸다. 그리고 신전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앞광장에는 200여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매 기둥에 무사의 모습을 조각하였다.

치첸이짜유적에는 이밖에도 사람들의 흥미와 감탄을 자아내는 여러가지 유물들이 있다. 모든 건축물들은 웅장하면서도 조화로우며 또한 정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고대마야인들의 재능과 지혜에 대하여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코반마야유적

코반마야유적은 온두라스의 수도 떼구시갈빠의 서북부 약 225㎞ 떨어진 과떼말라와의 국경가까이에 있다. 유적은 13㎞ 길이에 2.5㎞ 너비를 가진 협곡지대에 자리잡고있으며 부지면적은 15만㎡이다. 이

옛도시의 중심부분은 종교건축물들로서 피라미드제단, 광장, 신전, 상형문자들이 새겨진 계단, 돌비석과 조각 등이다.

코반은 마야문명에서 제일 오래고 제일 큰 옛도시유적이다. 코반은 일찌기 마야인들의 과학문화와 종교활동의 중심지였으나 무슨 리유인지 805년이후 마야인들은 갑자기 코반시를 버리고 북쪽으로 옮겨갔으며 그때로부터 코반은 점차 페허로 변하였다. 이것은 코반유적에 신비한 색채를 더해주고있다.

1980년 코반마야유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코반유적광장의 산언덕에 있는 피라미드의 높이는 30m이다. 피라미드에는 너비가 약 10m인 돌계단이 탑꼭대기까지 나있는데 2 500개의 꽃무늬와 상형문자가 새겨진 네모난 돌로 모두 63단을 쌓았으며 돌계단량쪽에 각각 얼룩무늬의 커다란 구렝이가 한마리씩 새겨져있고 구렝이의 꼬리는 산언덕꼭대기로 뻗어있다. 이 돌계단은 제사때에 신관과 각 부락의 두령들이 탑꼭대기로 올라가는 통로이다.

계단에는 총 2 000여개의 상형문자들이 새겨져있어 마야인들의 중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있다. 이 계단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진귀한 유물인것으로 하여 《상형문자계단》으로 불리운다.

광장의 가운데는 지하통로로 련결된 태양신전과 달신전이 있다. 신전의 길이는 30m, 너비는 10m이다. 벽과 문틀에는 내용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인물부각들이 있다. 두 신전사이의 공지에는 14개의 돌비석이 세워져있다. 이 돌비석들은 613～783년사이에 세워진것으로서 비석들의 높이는 다르지만 모두 통돌을 조각하여 만든것이며 우에는 상징적의미를 가진 조각들과 수많은 상형문자들이 빼곡이 새겨져있다.

코반마야유적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많은 조각상들이다.

광장부근의 어느 한 신전의 제단에는 태양신을 나타내는 커다란 사람머리석상이 있으며 다른 신전의 제단우에는 사자머리에 사람몸상인 두개의 조각상이 한손에는 비신을 상징하는 홰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몇마리의 뱀을 집고 입에도 뱀을 한마리 물고있다. 그

밖에 다른 산비탈과 신전의 제단에는 표정이 퍽 다른 거대한 사람머리석상이 세워져있다.

길이 1.22m, 높이 0.68m의 또 다른 제단에는 4개의 올방자를 틀고 마주앉은 신관이 조각되여있다. 그들의 몸에는 상형문자가 새겨져있고 손에는 책을 한권씩 들고있다.

이밖에 조각들속에는 검은 암석쪼각으로 상감하여 만든 돌범과 돌거부기도 있다.

웅장한 떼오띠와깐유적

떼오띠와깐유적은 메히꼬의 수도 메히꼬시 동북쪽 약 40㎞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다. B.C.200～A.D.650년사이 이곳은 아메리카인디안들의 중요한 정치와 종교활동의 중심지였다. 전성기에 이 도시는 주민이 약 20만명, 면적은 20㎢로서 그 규모는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과 비길만 하다.

이곳의 남북을 꿰뚫은 길이 4㎞, 너비 45m의 중앙대도로는 옛도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죽음의 대도로》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도시의 주요건축물들이 모두 대도로량쪽에 분포되여있으며 거리 남쪽끝에는 아무 건축물도 없는 공지가 있다.

도시는 고대인디안문명의 중요유적으로서 《모든 신의 도시》라는 이름이 있다.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옛도시의 중앙대도로가 왜 죽음의 대도로라고 불리우는가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들도 고증할 길이 없다. 당시 산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것이 성행했는데 시체는 거리에서 화장했다. 《죽음의 대도로》는 이로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추측된다. 떼오띠와깐에는 매장습관이 없으며 도시에서는 한개의 무덤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도로동쪽에 《태양피라미드》가 자리잡고있다. 이 피라미드는 2세기에 건설된 흙과 돌로 쌓아 만든 높이 65m, 남북길이 222m, 동서너비 225m인 건축물로서 이 유적에서 제일 큰 건축물이다.

태양피라미드의 커다란 돌들은 일정한 규격이 없으나 정교하

게 쌓아졌고 겉면은 석회를 바르고 그우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있었다. 하지만 천년세월 바람과 비를 맞으며 벽화는 이미 벗겨졌다.

피라미드의 네면은 모두 5층의 계단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여있으며 계단최대너비는 17m이다. 학자들이 높이 평가하는것은 피라미드의 네면이 정확히 동, 서, 남, 북 네방향으로 향해있는것인데 이는 매우 정밀한 관측기술을 요구하는 일이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본래 태양신전이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였다. 피라미드의 밑으로부터 지하도를 지나 안에 들어가면 작은 피라미드가 있다. 태양피라미드는 바로 작은 피라미드의 기초우에 덧쌓아 건설한것이다.

태양피라미드옆의 광장우측에는 피라미드를 관리하는 신관들이 살던 살림집들이 있으며 광장의 북쪽끝에는 화려한 《태양궁전》이 있다. 태양궁전은 태양피라미드의 최고신관의 궁전이다. 이 궁전안의 벽화는 화려한 색채로 하여 도시유적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벽화의 하나로 되고있다.

대도로북쪽에 《달피라미드》가 있으며 그 높이는 46m로서 태양피라미드보다 낮지만 높은 기초우에 건설되였기때문에 두 피라미드의 높이는 꼭같다. 피라미드정면에는 가파로운 계단이 있다.

달피라미드의 안에는 몇층의 구조로 되여있는 서로 다른 시기의 건축물들이 있다.

달피라미드의 앞에는 《달광장》이 있다. 광장은 남북 204.5m, 동서 137m이다. 달광장가운데는 네모난 제단이 있는데 떼오띠와깐의 중요한 종교의식들은 모두 이곳에서 진행되였다.

달광장의 건설에서는 대칭이 중시되여 사람들에게 웅장한감을 준다.

달광장의 서쪽에는 도시에서 제일 호화로운 건축물인 《나비궁전》이 있다. 이곳은 종교상층인물들과 고관귀족들이 살던 곳이다. 궁전안의 벽화는 완전하게 보존되여 원래의 아름다운 색채를 조금도 잃지 않고있다. 중앙홀의 둥근 기둥에는 《나비날개새몸뚱이》의 부각이 새겨져있다. 다른 원형기둥에는 아름다운 새 한마리

가 조각되여있는데 두날개를 모두 펴고 마치 마주 날아오는듯 이 생동하다.

나비궁전의 매 방들은 모두 사각형이며 바로 동서남북 네방향을 향하고있다.

나비궁전의 밑에는 떼오띠와깐시에서 제일 오랜 건축물로서 《날개달린 소라신전》이 서있다. 신전의 이름은 벽에 아름다운 날개장식을 한 수많은 소라들이 그려져있는것으로 하여 붙여졌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아메리카표범궁전》이 있는데 궁전의 문어구벽에는 두마리의 앉아있는 아메리카표범이 그려져있다. 아메리카표범은 대가리에 깃털을 장식하고 앞을 노려보면서 앞발로는 소라를 움켜쥐고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도시의 거대한 규모와 웅장하고 정교한 건축물들, 높은 경지에 오른 독특한 미술품들은 당시 이 도시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발전된 경제와 문화를 가진 도시의 하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디안들의 천지창조신화

《떼오띠와깐》은 인디안의 나와어에서 《태양과 달을 창조한 곳》이라는 뜻이다. 인디안전설에서는 그들이 숭배하던 제4대 태양이 더는 빛을 내지 않게 되여 세상은 암흑속에 잠기고 사람들과 만물은 괴멸의 위험에 처했다. 우주의 여러 신들이 이 일을 알고 떼오띠와깐으로 와서 모닥불을 지폈다.

지구는 다시 광명을 보게 되였으며 만물이 소생하고 사람들은 구원되였다. 하지만 얼마후 모닥불이 점점 약해지다가 꺼져버려 지구는 또다시 암흑속에 빠졌다.

지구의 인류가 영원히 광명을 보게 하기 위해 여러 신들은 태양피라미드와 달피라미드를 쌓았다. 두 피라미드사이에 다시 불을 지피니 점점 더 활활 타올랐다. 여러 신들은 누가 용감히 불속에 뛰여들어 첫 태양이 되여 영원히 사람들의 숭배를 받겠는가를 토

론했다. 여러 신들중 지위가 낮은 나나와떼신과 고귀한 떼크시스떼까르신이 자기들을 희생시키겠다고 나섰다. 나나와떼신이 먼저 불속에 뛰여들자 삽시에 붉은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올랐다. 떼크시스떼까르신은 무서웠지만 나나와떼신이 태양이 된 후 결심을 굳히고 이미 약해진 불무지로 뛰여들었다. 하지만 그는 태양이 될 기회를 잃고 어두운 빛으로 대지를 비치는 달이 되였다.

인까문화의 상징 마추삐끄후유적

마추삐끄후는 뻬루의 꾸스꼬 우르밤바강 왼쪽기슭의 해발 2 430m 높이의 산우에 자리잡고있다. 유적의 세면은 강기슭이고 한면은 열대산림과 련결된 깎아지르는듯한 절벽으로서 일년내내 구름속에 덮여있다. 마추삐끄후는 인까제국의 통치자 빠챠꾸가 1440년경에 세운것으로 인정되는데 1532년 에스빠냐침략자들이 뻬루를 정복할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고있었다. 고고학발굴에 의하면 마추삐끄후는 보통도시가 아니라 인까제국의 귀족들이 시골에 와 휴양하던 곳이였다.

유적은 13㎢의 부지면적에 태양신전, 군사보루, 제단, 귀족들의 숙소, 평민들의 살림집, 시장, 수공업장, 광장, 목욕탕 등 근 200개의 건축물들을 가지고있다. 또한 산비탈과 도시를 련결하는 약 3 000개의 계단이 주위의 자연환경과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있다.

산등성이비탈과 뒤산에는 100여층의 다락밭을 일구어 식량과 남새를 재배하였다. 이로 하여 마추삐끄후는 인까제국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침략으로 16～17세기 이곳은 황페화되였다가 1911년에 다시 발견되였는데 여전히 인까시대의 모습을 보존하고있었다. 1983년 마추삐끄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이곳은 세계에서 얼마 안되는 문화와 자연의 2중유산들중 하나이다.

마추삐끄후는 돌성으로서 모든 건축물들을 커다란 돌들로 쌓았으며 매 돌들은 매끈하게 연마되였다. 돌과 돌사이에는 어떠

한 점착제도 없이 빈틈없이 맞물려있어 아주 얇은 칼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돌들중에는 무게가 200t이 넘는것도 있다. 그중의 어느 한 돌은 33개의 각이 나있는데 매개 각은 이웃한 돌들의 각과 빈틈없이 결합되여있다. 이런 대규모의 건축과 치밀한 축조기술, 놀랄만한 중량은 건축사에서 기적이라고밖에는 부를수 없다.

유적은 크게 웃성구역과 아래성구역으로 나누인다.

웃성구역은 마추삐끄후유적의 서쪽측면에 자리잡고있다. 이곳은 도시구역으로서 신전, 제단, 귀족들의 저택 등이 대표적이다. 웃성구역의 서부는 남자구역과 종교구역으로 나누는데 이곳에서 제일 주목을 끄는것은 왕궁과 대탑루이다. 이 두 건축물의 석벽은 대단히 정교하고 아름다와 꾸스꼬의 태양신전과 녀신사당에 비길만 하다.

웃성구역의 동부도 두개의 소구역으로 나누는데 봉사구역과 녀인구역이 있다.

봉사구역의 주요건축물로는 인까인들이 식량을 가공하던 곳인 제분소와 그에 달린 집들과 창고들이 있다. 녀인구역에 있는 삼문청은 유적에서 제일 큰 건축군의 하나로서 여기에는 16개의 작은 구역들이 있다. 빠챠어머니신전도 녀인구역에 있는데 인까인들이 다산을 상징하는 대지의 녀신 빠챠신을 모시던 곳이였다.

마추삐끄후의 아래성구역은 주민구역과 창고구역으로 되여있으며 이곳의 석조건물들은 웃성구역에 비해 거칠고 웅장하지 못하다. 이로 하여 아래성구역은 《평민구역》으로도 부른다.

평민구역의 끝에 있는 돌집의 바닥에는 두개의 절구 비슷한 둥근 구뎅이가 있다. 처음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인까인들이 낟알을 가공하던 방아간이라고 보았다. 후에 고증된데 의하면 이 두개의 둥근 구뎅이는 여기에 물을 담아 태양, 달, 별을 관측하는데 리용한 천문기구였으며 돌집은 아래성구역에 설치된 천문관측소였다는것이 밝혀졌다.

마추삐끄후에는 여러개의 신전들이 있는데 그중 태양신전은 인까인들이 태양을 제사지내는 곳이였을뿐아니라 천문관측도 겸하고 있었다. 태양빛은 면바로 태양신전의 동창으로 비쳐들어 신전안의

태양이 솟는 지점을 측정하는 돌우에 정확하게 그림자를 던진다.

주신전, 삼창사당 그리고 제사용기구와 그릇보관실은 모두 이 신전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되고있다. 주신전은 세면이 벽으로 막히고 한면이 개방된 건축물로서 그 동서량쪽벽은 거대한 돌기초우에 세밀하게 다듬은 돌로 쌓아 만들었으며 그안에 또 거대한 돌로 쌓은 제단이 있다. 주신전의 곁에 있는 삼창사당은 거대한 돌로 만든 커다란 창문이 세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창사당에는 돌기둥 하나가 천정을 받치고있다.

돌기둥옆에는 계단형돌조각품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우주를 상징하면서 인까신전의 중요한 표식으로 된다.

마추삐끄후에서 제일 유명한것은 높은 산꼭대기에 우뚝 서있는 괴이한 거석으로서 《해시계》라고 불리우며 인까사람들은 《태양을 묶는 돌》이라고 불렀다. 이 바위돌은 인까사람들의 넋이였다고 볼수 있다. 인까사람들은 이 거석이 서있는 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을 태양의 자손으로 보았다. 도시들을 높은 산꼭대기에 건설한것은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전설에 의하면 인까사람들은 매해 동지날이면 태양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상징적으로 태양을 이 거석에 《비끄러매군》 했다.

《태양을 묶는 돌》은 천체의 현상을 관측하는 역할을 했으며 사람들은 돌기둥의 그림자를 통해 날자와 시간을 판단하고 농작물의 파종과 수확을 계획하였다. 이 해시계의 받침돌의 각은 지북침의 역할도 했다.

1532년 수백명의 에스빠냐인들이 인까제국을 침입하여 학살과 략탈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하지만 마추삐끄후는 지세가 험한것으로 하여 에스빠냐군대에 발견되지 않고 재난을 면하였다. 1911년에 한 탐험가가 전설속의 《사라진 인까도시》를 찾던중 길을 잘못 들어 우연히 황페한 산속에서 마추삐끄후를 발견하였다.

번화했던 인디안촌락 메싸우드유적

오늘의 미국령토는 16세기까지도 이곳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이 살던 곳이였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고장에서 창조적로동과 지혜로 인류문화사에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는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1888년 추운 겨울 어느날 두명의 아이들이 자기들이 잃어버린 두마리의 소를 찾으려고 어떤 골짜기의 변두리까지 가게 되였다.

갑자기 거대한 벼랑밑에 허물어진 《궁전》이 있는것을 발견한 아이들은 공포와 놀라움으로 하여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을 따라 골짜기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고대유적의 방대한 규모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류다른 발견에 대한 소식은 급속히 퍼지였으며 동시에 사람들속에 신비한 민족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을 격발시켰다.

모두는 오래전에 어떤 신비한 민족이 여기에 도시들과 성새들을 건설했으나 후에 영문모르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그 건축물들을 세운 사람들은 미국남부의 푸에블로인디안의 선조들이였으며 그들은 아나싸치인으로 불리웠다는것이 밝혀졌다.

그들에 의하여 창조된 고대문화를 아나싸치문화라고 부른다. 아나싸치문화는 주로 아리조나, 뉴메히코, 콜로라도, 유타 등 미국서부주의 경계에 집중되여있다.

아나싸치문화는 북아메리카인디안문명에 속하며 대략 A. D. 100년에 시작되여 700～1050년사이에 발전의 절정에 올랐는데 이 시기를 푸에블로시기라고 하며 그이후 1300년까지를 고전푸에블로시기라고 한다.

1276년부터 20년이 넘게 이곳에는 가물이 계속되여 많은 주민들은 식량과 물을 찾아 다른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때로부터 이곳은 몰락하기 시작하였는데 그후 백인인종주의자들의 침입이 시작되자 아주 황페화되고말았다.

새로 발굴된 메싸우드유적은 고전푸에블로시기에 해당되는 인디

안촌락이다.

유적은 해발 2 600㎞ 되는 고원에 자리잡고있으며 부지면적은 210.74㎢이다.

이 높고도 평평한 땅에서 대략 3 800개의 유적이 발굴되였다. 그중에는 벼랑궁전, 가문비나무다락집 등 유명한 건축물들과 함께 물을 저장했다가 밭에 주는 물저장고, 칠면조를 사양한 흔적, 백색바탕에 검은 무늬를 새긴 도자기, 정교한 석기들과 뼈도구들, 손으로 짠 천 등이 발견되였다. 일부 무덤들에서는 아직까지도 부패되지 않은 미이라들도 나왔다. 이로부터 당시 이곳이 아주 번화했던 인디안촌락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촌락은 벼랑으로 둘러싸인 반원의 대지에 살림집들이 빼곡히 들어찬 부락들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온전한 부락유적이 300여개나 나타났다. 매 부락은 바로 한가족의 집체거주장소였다. 부락은 해빛에 말리운 커다란 토피들로 쌓은 담장으로 둘러쳐있다.

부락안에는 두칸짜리 살림집들과 정원 그리고 종교건축물들이 있다. 살림집들은 2층부터 5층까지 같지 않으며 하나의 중심정원을 둘러쌓고 웃층으로 올라가면서 축소되였으며 웃층의 대부분 방들은 이웃한 방들로 통하는 문이 있고 아래층은 제사에 쓰는 그릇들과 식량을 저장하는데 리용되였다.

촌락에는 태양신전, 제사장소, 로대집, 사각형탑집, 설송탑, 메아리실 등 기타 많은 건축물들이 있다.

그밖에 협곡량쪽의 비탈에 다락밭이 건설되여있으며 골짜기밑에는 못이 있다.

촌락안의 제일 큰 부락에 고층의 《벼랑궁전》이 있다.

벼랑궁전은 수백명이 들어가살수 있는 세움식건물이며 약 11세기에 건설되였다. 벼랑궁전의 모든 층들은 벼랑을 따라 축조되였는데 배치가 아주 리상적이다. 고층집주위에는 원형, 사각형의 소층집이 있다. 사각형벼랑궁전의 벽길이는 90m이며 내부에 칸을 막아 150개의 방을 만들었다. 집의 밑에는 20여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제일 큰 땅구멍은 7개의 방안크기만 하다. 이곳은 주민들이 종교의식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궁전의 북쪽에 있는 《잔

들의 방》에서 430개의 잔들과 함지, 밥그릇, 독 등 부엌도구들이 발견되였다. 이 《잔들의 방》은 제사용그릇보관실이였을것으로 볼수 있다. 이 건축물의 앞에는 로천평지가 설치되여 식사와 집일용으로 쓰이였다.

가문비나무다락집도 벼랑가에 자리잡고있는데 가문비나무로 만들었기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건물은 길이 203m, 너비 84m인 3층집이며 114칸의 살림방과 8칸의 제사실이 있다.

그중 한동이 25개 방으로 이루어진 다락집이 있는데 밖으로 쑥 나온 로대우에 건설되였으므로 《로대다락》이라고 부른다. 다락집밑에는 땅굴로 통하는 작은 통로가 있으며 매 땅굴은 너비가 3m, 길이가 204m이다. 메싸우드유적은 이곳에서 천여년이 넘도록 살아온 인디안들의 변화했던 사회경제생활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하여 그려볼수 있게 해준다.

흑인들의 고대문명을 보여주는 짐바브웨돌성

사람들은 흔히 아프리카의 고대문명이라고 하면 아프리카북부에서 발상된 고대에짚트의 문화를 생각하며 그 상징인 피라미드를 그려본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유럽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수세기동안 인종적멸시와 비참한 노예살이를 강요당해온 흑인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살고있던 고장들에서 백인들 못지 않은 찬란한 고대문화를 창조하였다. 오늘 아프리카의 남부와 동서부, 지어 광대한 사하라사막지역에서도 흑인들의 창조적지혜를 보여주는 많은 고대유적들이 발굴되였다.

짐바브웨의 돌성은 남부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창조한 고대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통계에 의하면 짐바브웨에는 수백개의 돌성유적이 있는데 그중 짐바브웨 마스빈고(원래이름 빅토리아)동남쪽 약 29㎞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는 돌성유적을 대짐바브웨돌성이라고 하면서 대

표적으로 꼽고있다.

대짐바브웨돌성은 사하라사막이남지역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은 돌성건축군이다.

이 돌성유적은 남부아프리카문명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이름도 이 유적에서 유래되였는데 《짐바브웨》란 아프리카반투어계통의 쇼나어로 《돌성》이라는 뜻이다.

이 유적의 건축물들은 대체로 4～5세기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 증축확장되여 14～15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1871년 이곳을 탐험한 도이췰란드지리학자 칼 모어가 제일 먼저 이 유적을 세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흑인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인종적편견에 사로잡혀있던 사람들은 이 기적같은 문화유적의 가치를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다.

대짐바브웨돌성유적의 총면적은 720만㎡이며 돌성, 성당, 유적의 골짜기로 구성되여있다. 유적안에는 집들과 정원 등 각이한 용도의 돌건축물들이 널려져있으며 또 사당들과 좀 작은 건축유적들이 있다. 이 돌건축물들은 총 90여만개의 화강석으로 쌓아 만들었으며 돌들은 어떠한 점착제도 없이 련결되여 오늘까지도 견고하고 웅장하게 솟아있다.

1986년 대짐바브웨유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돌성은 유적의 북부에 있는 100여m 높이의 산에 건설되였다. 성의 높이는 7.5m, 밑두께 약 6m로서 보기에도 매우 든든하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돌성은 성안에 있는 성당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였다고 한다.

성벽은 주로 돌로 쌓았으나 일부분은 산기슭의 천연바위를 그대로 리용한것도 있다.

돌성은 4개의 위성으로 둘러싸여있는데 매개 위성은 골짜기와 동굴 등 지형지물을 잘 리용하였으며 제사와 금속제련과 같은 자기의 독특한 사명이 있었다.

성당은 성의 남쪽에 있는 타원형의 건축물로서 이 유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여있는 원형성당의 직경은 106m이며 안벽

과 바깥벽으로 이루어져있다. 바깥벽은 톱날과 같은 꽃무늬모양이며 높이는 11m, 두께는 5m, 둘레길이는 약 250m이다.

안벽은 반원형으로서 둘레길이가 90m이다.

안벽과 바깥벽사이로 통로가 있고 통로의 남쪽에는 높이 11m의 원추형탑이 세워져있다. 탑꼭대기는 두줄로 된 그물무늬의 장식이 새겨져있다.

위성들과 성당사이에 10개의 크고작은 돌건축물이 있는데 그 형태는 성당과 비슷하나 크기가 작을뿐이다. 그밖에 여러개의 돌건축물들이 있다. 성벽과 위성들, 성당과 탑, 그밖의 모든 건축물들은 일정한 비례와 조형미에 맞게 배치되고 쌓아졌다.

고고학자들은 이 돌성이 짐바브웨문화의 정수라고 평가하였다.

짐바브웨문화란 어떤것인가?

짐바브웨문화는 짐바브웨돌성을 대표로 하는 철기시대의 문화이다.

이 문화는 화강석으로 쌓은 건축물들과 발전된 상업무역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이 문화의 번영시기는 13～16세기까지이다.

중세시기 짐바브웨의 경제는 대단히 번영했다. 14세기이후 이곳은 점차 쇼나인(아프리카남부의 짐바브웨인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들의 정치와 종교활동의 중심으로 되였다. 대짐바브웨는 15세기초의 모노모따빠왕국과 15세기말의 로즈비왕국시기에 왕국의 수도였다. 모노모따빠왕국시기 대짐바브웨는 무역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당시 황금, 상아와 외국무기의 교환무역이 아주 성행하였다. 외국의 상인들도 이 두 왕국안에 깊숙이 들어와 무역활동을 하였다.

16세기초 식민주의자들의 침입과 왕국내부의 분쟁으로 두 왕국은 련이어 쇠퇴해졌다. 짐바브웨문화도 이때부터 점차 쇠퇴해졌다.

오늘 짐바브웨돌성은 아프리카인민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아프리카력사의 유구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으로 되고있다.

《짐바브웨의 새》의 수난

고대문화의 유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짐바브웨의 새》는 담록색의 주석으로 만든 새조각품으로서 대짐바브웨돌성에서 발견되였다.

주석이란 금속주석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곱돌의 일종으로서 그 색은 흰색, 누런색, 붉은색, 푸른색 등 여러가지이다. 주석은 질적으로 아주 무르지만 마찰에 잘 견디는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있으며 얼룩이 잘 생기지 않고 어떤 산에도 잘 녹지 않는 보석의 일종이다.

이런 희귀한 주석으로 길이 50㎝의 새를 정교하게 조각하였는데 몸은 매와 비슷하고 대가리는 비둘기와 비슷하다. 새는 목을 높이 쳐들고 날개는 접은 상태에서 1m 높이의 돌기둥에 얹혀있었다.

발견당시 조각품은 모두 8마리였는데 한마리는 사람들에게 얻어맞아 대가리가 떨어지면서 유적의 성벽에 내버려졌다. 새조각품은 모두 백인식민주의자들에게 략탈당하고 한마리만이 남아있었다.

1980년 짐바브웨가 독립하면서 이 새조각품은 짐바브웨의 상징으로서 나라의 국기, 국장, 쇠돈에 찍혀졌다. 이와 함께 백인인종주의정권을 몰아낸 남아프리카정부에서 그곳에 보관되여있던 《짐바브웨의 새》 6마리중에서 한마리만 자기들의 박물관에 남겨놓고 5마리는 짐바브웨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가장 곡절이 많은것은 대가리가 떨어진 그 새조각이였다. 발견당시 대가리가 없는 그 새조각품은 이곳에 온 도이췰란드선교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후 이 선교사는 그 불완전한 조각품을 조국으로 가져다가 베를린의 인류학박물관에 팔아먹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베를린을 함락한 쏘련군대는 박물관에서 이 희귀한 조각품을 보고 쏘련으로 가져다가 레닌그라드박물관에 전시하였다. 동서도이췰란드가 통일된 후 이 조각품은 다시 베를린으로 보내여졌다. 짐바브웨정부는 자기 민족의 귀중한 재보를 찾기 위해 도이췰란드정부와 교섭을 진행하여 마침내 2003년 5월 이 새조각품은 짐바브웨로 돌아오게 되였다.

고대동방의 4대기적－보로부두르불교사원

보로부두르는 싼스크리트어로 《산정의 절간》이라는 말이다. 규모가 크고 정교하게 건설된 보로부두르불교사원은 인도네시아의 쟈바섬중부의 메라피화산의 한 언덕우에 자리잡고있다.

이 불교사원은 750～850년사이에 쟈바섬을 통치한 샤렌트라왕조시기에 건설되였다. 이 불교사원은 인도네시아의 고대건축과 조각, 회화예술이 집대성되여 중국의 만리장성, 에짚트의 피라미드, 캄보쟈의 앙코르와트와 함께 《고대동방의 4대기적》으로 불리우고있다.

보로부두르불교사원은 건설된 후 인도네시아지역에서 불교연구와 전파의 중심지로 되여있다가 화산폭발에 의하여 땅속에 묻히고말았다. 그후 인도네시아에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천여년동안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다가 19세기초에 와서 발견되였다.

1907～1911년에 사원은 초보적으로 수복되였다.

1975～1987년사이에 보로부두르를 구원하자는 유네스코의 호소에 따라 27개 나라들의 지원밑에 2 000만US$의 자금이 투하되여 두번째 수복작업이 진행되였다.

오늘 보로부두르불교사원은 85㏊의 부지면적을 가진 관광명승지로 되여 해마다 세계각지의 불교도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고있다.

보로부두르불교사원은 약 200만개의 현무암돌을 쌓아 만든 석조건축물로서 기본건축물은 지면에서의 높이가 33.5m인 탑이다. 탑은 3층의 단으로 구성되여있다. 맨 밑단은 한변의 길이가 123m, 높이가 4m인 장방형의 탑기초이며 사리탑들이 둘러서있는 가운데단은 우로 올라가면서 축소되는 3개의 원추형탑신이며 맨 웃단은 거대한 종모양의 탑머리(쑤투파라고 한다.)로서 그 최대직경은 9.9m이다.

탑기초의 네면의 가운데마다 입구가 있는데 다해서 32마리의 돌사자가 지키고있으며 매 입구마다 탑머리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사원의 동쪽에 있는 기본입구로부터 사원 전체에 수많은 조각, 그림, 불상들이 배치되여있어 하나의 불교미술박물관을 련상시킨다.

보로부두르사원에는 약 2 670개의 부각이 있다. 그중 약 1 460개가 서사부각이고 약 1 200개가 장식부각이며 각각 탑기초와 탑신에 새겨져있다.

탑기초를 장식한것은 불상들과 함께 160폭의 류다른 부각인데 그 주제는 불경의 내용을 형상한데다 세속인물들, 열대화초와 새, 짐승들이 형상되여있다.

방형단의 매 층의 주벽과 란간사이에는 너비 2m의 긴 회랑이 4개가 있는데 그 총길이는 3 200m이다. 이 길다란 회랑의 량벽에는 련속된 부각과 함께 2 500폭의 그림이 있다. 그림들은 역시 불교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있다.

사원에는 다해서 505개의 불상이 안치되여있다.

그중 432개는 탑기초를 둘러싸고있고 72개는 가운데단의 3층의 탑신에 있으며 하나는 중심탑머리에 안치되여있다.

불상들은 동서남북 각이한 방향을 따라 안치되고 서로 다른 이름

상 식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력사에서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것인가.

청동기시대는 어느 년대를 특별히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고고학에서 청동기를 사용한것을 기준으로 하는 인류문화발전의 한 단계이다.

청동기를 쓰면서부터 사람들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창조적활동을 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류의 농업과 수공업생산수준은 급속히 높아졌다. 청동주조술의 발명은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노예사회로 이행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계에서 최초로 청동기시대에 들어간것은 우리 나라의 대동강류역과 중동의 량강류역과 에짚트 등지이며 약 B. C. 3000년에 시작되였다.

을 가지고있으며 얼굴표정과 몸가짐새가 서로 다르게 형상되여있다.

보로부두르사원은 웅장하면서도 잘 째인 건축구성과 정교한 축조기술과 함께 높은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미술품들로 하여 고대 인류문화의 대표적유산의 하나로 된다.

이 사원은 인디아의 고대건축과 미술의 전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고유의 문화도 뚜렷하게 나타내고있음으로 하여 인도네시아인민들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인디아의 쌍보석－아잔타석굴

아잔타석굴은 인디아서북부 마하라슈트라주 서북부의 바고다강기슭에 있는 절벽을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불교사원이다. 그 규모와 뛰여난 건축, 미술의 성과로 하여 타지마할과 함께 《인디아의 쌍보석》으로 불리운다.

아잔타석굴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년전에 건설되였으나 그후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퍼지면서 점차 몰락하였다고 추측된다. 전설속에나 남아있던 아잔타석굴이 다시 발견된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1819년 어느날 인디아 하이데라바드왕국의 니쟈므왕은 영국주둔군지휘관 죤 스미스를 사냥에 초청하여 함께 범사냥을 하였다.

스미스는 범 한마리를 쏘아 부상을 입혔는데 범이 비틀거리며 벼랑의 산길을 따라 뛰는것을 보고 따라갔다. 그런데 범은 맞은켠 산의 덤불속으로 들어가더니 종적이 없어지고말았다.

함께 따라가던 왕은 그 암벽우의 나무들과 덤불을 모두 정리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오랜 세월 감추어져있던 전설속의 석굴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였다.

10호동굴의 암벽에는 지금도 《죤 스미스 1819》라고 새긴 글이 있는데 전하는데 의하면 여기가 바로 그 범이 숨은 곳이라고 한다.

현재 있는 석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차례로 1～29번까지 순서대로 번호가 붙여져있다. 석굴이 있는 강안절벽은 높이가 70～80m사

이이다. 이 절벽을 뚫고 들어간 석굴의 높이는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가로방향으로 배렬되여있으며 총연장길이는 550여m이다.

아잔타석굴은 B. C. 2세기부터 A. D. 6∼7세기기간에 판것으로 보고있다.

《아쟌타》라는 말은 싼스크리트어로 《무상》, 《무사》라는 뜻이다.

아쟌타석굴의 건축형식은 례배당으로 리용하는 차이쨔와 중들이 사는 승방인 비하라 두 종류이다.

차이쨔는 싼스크리트어로 사리를 보관하는 탑이라는 뜻이며 지금은 불전으로 해석되고있다.

불전의 중심에는 말발굽형의 사당을 만들고 그 사당의 뒤쪽에 탑을 세웠다. 동굴안 석벽의 주위에는 웅장하고 아름답게 조각한 기둥들이 둘러서있으며 천정은 궁륭형을 이루었다. 아쟌타석굴의 9, 10, 11, 26, 28호(미완성)석굴이 차이쨔동굴이다.

비하라는 승려들이 살면서 도를 닦고 강의를 하고 모임을 하던 곳이다. 비하라동굴의 평면은 방형이며 가운데는 강당이고 주위에는 승방들이 있고 늘어선 기둥들에 의해 안팎으로 구분된다.

천정은 모두 사각형이며 아름다운 그림들로 장식되였다.

아쟌타석굴에서 가장 눈에 띄우는것은 벽화이다. 벽화에는 불교의 내용과 함께 수많은 현실생활장면들이 그려져있으며 특히 그림속의 남녀인물형상은 인디아고전예술의 미학사상을 반영하고있다.

벽화는 시대에 따라 조, 중, 만 3기로 나눌수 있다. 조기벽화의 구도는 대부분 가로 길게 늘인 형이며 형상기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소박하다.

중기벽화는 굽타왕조(약 320－540년)시기 문화예술의 전성기를 대표하는데 화면구도가 장쾌하고 구성이 째이고 색채가 우아할뿐아니라 인물의 인상과 감정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그중 녀인의 묘사가 특히 생동하고 섬세하다.

중기동굴들의 장식벽화들도 독특하다.

만기에 이르러 벽화의 구도는 크고 장중해졌으며 화면의 립체감을 강조하고 인물장식이 더 화려해져 아쟌타석굴벽화의 최고걸작으로 되였다.

아잔타석굴의 조각도 조, 중, 만 3기로 나눌수 있다. 조기의 조각은 심하게 풍화되여 식별하기가 매우 힘들다. 중기의 조각은 점차 성숙되여가는 단계로서 16호굴의 불상, 19호굴의 녀자상 그리고 뱀신상 등 많은 걸작들이 있다.

만기의 조각들은 규모가 한층더 확대되고 인물의 묘사가 더 생동하고 정교해졌으며 형태도 더 우아해졌다. 대표적인것들로는 26호굴의 악마를 다스리는 불타와 보살의 죽음을 형상한 조각과 1호굴의 석가모니상이다. 굴안 네벽을 꽉 채운 부각들도 풍부한 환상과 예술적기교를 보여주고있다.

인디아에서 바위굴을 파서 석굴사원을 건설하기 시작한것은 B.C. 3세기 중엽부터이지만 7～8세기에 이르러 점차 쇠퇴하였다. 인디아의 비하르주 파라파르산구역에 최초의 석굴군이 있는외에 주로 빈디야산맥과 데칸고원일대에 석굴들이 많이 분포되여있다.

인디아불교석굴의 건축물들과 회화, 조각의 특징들은 동아시아각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샤말라고성

샤말라(싸마라)고성은 청동기시대에 이미 존재하였다. 이 고성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30㎞ 떨어진 티그리스강량안에 자리잡고있으며 남북길이는 약 41.5㎞, 너비는 4～8㎞로서 같지 않다.

이곳은 강대하였던 이슬람제국의 도성유적으로서 일찌기 뛰니지로부터 중앙아시아까지의 넓은 지역을 통치하였던 아빠스왕조의 수도였다. 사람들은 처음 이 유적에서 제작기술이 정교하고 장식이 화려한 도기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을 《샤말라도기》라고 불렀다. 발굴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여 샤말라도기가 독자적으로 발전한 문화에 속한다는것이 증명되였으며 이것을 《샤말라문화》라고 부르게 되였다.

샤말라문화는 건축과 예술에서 아주 독창적이였으며 이러한 창

조성은 부단히 발전하여 이슬람세계와 그밖의 다른 지역에까지 전파되였다.

바그다드로부터 샤말라로 수도를 옮기였을 때 여기에는 웅장한 궁전과 아름다운 원림이 건설되여 도시는 티그리스강을 따라 3 000m 길이까지 확장되였다. 9세기말 수도가 다시 바그다드로 옮겨가자 샤말라성은 점차 쇠퇴해지기 시작하였다. 1300년에 이르러서는 도시가 거의 페허로 되였으나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은 당시에 번영하던 도시의 규모와 발전된 문화에 대하여 알수 있게 한다.

고성에는 아직도 많은 유적들이 발굴을 기다리고있다.

9세기에 건설된 샤말라이슬람교사원과 라선탑은 고성에서도 뛰여난 건축물들중의 하나이다.

라선탑은 837년에 건립되였으며 거대한 소라를 방불케 하는 독특한 건축형상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벽돌과 점토로 축조된 라선탑높이는 52m이며 7층으로 되여있다. 탑체는 고리형으로 우로 향하며 탑신우에는 시계바늘반대방향으로 라선형계단을 설치하였는데 계단의 너비는 약 2.5m이다. 라선탑의 란간이 심히 파괴되였으므로 용감한 관광객만이 계단으로 탑꼭대기까지 올라갈수 있다. 탑은 비단길에 있는 유적으로서 고대동방과 서방의 경제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샤말라이슬람교사원은 왕실사원으로도 불리운다. 사원은 샤말라시동북부에 있는데 아빠스왕조의 무아타이쑤임(재위 833−842년)시대에 건설이 시작되였으며 그의 아들인 무타이와지르(재위 847−861년)가 849～851년사이에 확장하였다.

사원은 장방형이며 길이 238m, 너비 156m, 면적은 3만 7 128㎡로서 당시 이슬람교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컸던 사원의 하나였다. 동시에 근 1만명의 이슬람교도들이 례배를 볼수 있었다고 인정되고있다. 사원의 담장은 높이가 10m이고 그사이에 40개의 반원의 기둥들이 있다. 정원중심에 분수가 있어 물이 돌돌 흐르는 정경은 아주 아름답다. 넓다란 례배실의 오목벽은 황금으로 상감하였으며 활대구조의 창문들과 균형잡힌 기둥들, 화려한 장식으로 둘러싸인 21개의 출입문들은 독창적인 아랍인들의 건축예술을 자랑하고있다.

오래동안 수복하지 않아 사원의 기본건물은 많이 파괴되고 오직 선례탑만이 아직 보존되여 현재 중요한 력사유적과 관광지로 되고있다.

바빌론의 유적

바빌론유적은 이라크에 있는 고대바빌로니아국가의 가장 큰 도시유적이다. 이곳은 B.C. 25세기부터 바빌로니아왕국의 수도로서 번창하였다. 유적은 바그다드의 남쪽 약 80㎞ 떨어진 프라트강 동쪽기슭에 자리잡고있다. 프라트강을 사이에 두고 장방형의 2중성벽과 운하로 둘러싸인 도시는 정연한 도시계획에 기초하여 건설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성벽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으며 마르도우끄신전을 비롯하여 큰 신전만 하여도 53개, 그밖에 크고작은 수백개의 사당들과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찼으며 두줄기의 큰 도로, 24줄의 도로가 바둑판모양으로 나있었다. 또한 프라트강에는 120m에 달하는 큰 돌다리가 걸려있었다. 북쪽에는 지그라트탑이 솟아있었는데 이 탑은 천지의 경계라고 일러오고있었다. 총 7층의 계단식피라미드형으로 되여있는 이 탑은 1층의 넓이가 8 100㎡이고 7층은 304㎡에 높이가 15m였으며 그우에는 신이 내려온다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있었다고 한다.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은 메쿠아신전으로서 신전의 벽은 모두 금, 피취, 대리석으로 장식하였고 천정은 레바논의 향백나무로 되여있었다고 한다. 개선도로의 너비는 10～20m이고 그가운데 6～7m는 아름다운 포석으로 깔려있었으며 길 량쪽벽은 유약을 칠한 여러가지 신성한 짐승들로 장식되여있었다. 왕궁은 322m×190m의 부지를 차지하고있었으며 이른바 바빌론의 《공중화원》이 있었다고 한다. 발굴사업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당시에 건설재료로서 돌보다 해볕에 말린 벽돌을 많이 썼기때문에 제모습대로 남아있는것이 적다.

하지만 이 유적은 고대바빌로니아왕국의 문화와 도시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으로 되고있다.

올림피아의 유적

올림피아유적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반도의 크로니스산옆 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고대그리스의 성지이다. 이 유적의 발굴은 1829년부터 시작되였으나 본격적인 발굴사업은 1879년부터 진행되였다.

옛적에 이곳은 뭇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숭배하는 종교중심지였으며 동시에 예술과 체육활동의 중심지였다.

이 유적에서 많은 신전들과 경기장, 려관, 련무장과 같은 건축물들이 발굴되였으며 130여개의 우상과 1만 3 000여개의 청동기가 나왔다. 오늘 이곳은 유명한 제우스신전, 헤라신전 등 신전들이외에도 B.C.776년부터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진행된 고대올림픽경기대회의 각종 체육시설들과 유물들이 보존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력사유적으로 되고있다.

올림피아제우스신전은 B.C. 457년에 건설되였으며 길이 64m,

상 식

고대올림픽경기

고대올림픽경기는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반도 서북부도시 올림피아에서 B.C.776년부터 각 도시간의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종교적행사의 하나로 4년에 한번씩 진행된 체육경기이다.

경기는 약 5일동안 진행되였는데 첫날부터 3개월동안 모든 전쟁과 군사행동을 중지하였다. 고대올림픽경기종목은 대회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달리기, 너비뛰기, 씨름,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판크라티은(권투와 씨름을 결합한것), 경마, 2륜마차경기, 명령전달경기 등이 기본이였

너비 약 28m, 높이 약 20m인 건물잔해가 아직 남아있다. 유적은 대리석받침과 돌기둥, 담벽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당시에는 104개의 돌기둥이 웅장하게 서있었을것이라고 보고있다.

지금 남아있는 제우스신전의 예술적정화는 동서벽우에 있는 인물조각군상이다. 이 군상들은 그리스의 영웅 포로프스가 수레에 앉아있는 모습과 그리스인들이 반사람반말인 괴물과 싸우는 신화이야기를 형상한 이른시기의 조각이다.

제우스신전에는 원래 약 B.C.5세기 후반기에 세운 거대한 제우스신상이 세워져있었다. 이 신상은 황금과 상아를 박아넣은 고대그리스조각의 대표작으로서 그리스사람들에 의해 《세계7대기적》의 하나로 찬양되였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파괴되였다.

올림피아유적안의 헤라신전은 그리스의 여러 신전중에서 가장 오랜 건축물로서 B.C.600년경에 건설되였다. 그리스신화에 의하면 헤라신은 제우스신의 안해로서 올림프스의 12신들중의 하나이며 사람들의 혼인과 가정을 주관한다고 한다.

이 신전안에도 원래 헤라녀신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파괴

으며 총경기종목은 26종이였다. 올림픽경기에는 처음에 부유한 귀족층의 성인들로서 10달이상 전문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참가하였다. 그후 점차 평민들과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 직업적인 선수들과 소년들도 참가하게 되였다. 녀자들은 경기장에 들어갈수 없었다. 경기에서는 기록은 따지지 않고 다만 우승하는것만을 주요시하였다. 이긴 사람들에게는 올리브나무가지로 만든 다발을 씌워주고 때로는 기념비도 세워주었으며 일련의 정치, 경제적우대도 해주었다.

경기와 때를 같이하여 시읊기, 노래부르기, 연설, 연극 등이 벌어지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였다.

올림픽경기는 그리스가 로마에 의하여 정복된 후 394년에 제293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금지되였다.

되였다. 현재 유적의 높고 큰 돌기단우에는 몇개의 회갈색의 커다란 기둥만이 남아있어 옛날의 웅장화려함을 암시해주고있다. 현대 올림픽경기대회의 성화에 불을 지피는 의식은 이 헤라신전앞의 광장앞에서 진행된다.

올림피아유적에 있는 경기장은 300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경기장의 기본입구에는 돌벽돌로 쌓은 긴 복도가 있고 관람석과 귀빈석은 산기슭을 리용하여 축조되였다.

경기장의 네 측면에 선수들과 심판원들의 입장구가 있으며 동서방향으로 석회암으로 쌓아 만든 달리기주로와 경기마당이 있다. 주로는 길이 210m, 너비 32m이다. 경기장의 수용능력은 4만명이였던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장은 부근의 련무장, 신관들의 숙소, 려관, 회의장, 성화단과 기타 건축물들과 함께 방대한 건축군을 형성하고있다. 올림피아유적은 고대그리스인들의 높은 건축술과 사회경제관계, 예술, 종교, 문화생활의 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유적에는 올림피아고고학박물관이 건설되여 발굴된 고대올림픽경기기재들과 고대그리스의 무장장구류 등 고대유물들이 전시되여있다.

폼뻬이유적

폼뻬이시는 고대로마의 도시로서 아뻬닌반도 서남쪽 바다가에 있는 력사가 오랜 도시이다. 처음에 도시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새로 건설되였으나 계속되는 전쟁과 민족의 융합, 문화의 교류를 거치며 부단히 확장되고 경제와 문화령역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79년 8월 24일 새벽 폼뻬이부근의 베주비오화산이 폭발하면서 대량의 화산재와 용암이 흘러내려 전체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세월이 흘러 폼뻬이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졌다.

16세기에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도랑을 파다가 《폼뻬이》라고 새

긴 돌을 발견했다. 그후에도 베주비오산기슭에서 우물을 파던 사람들이 3개의 녀자조각상을 파낸 일이 있었지만 하나의 고대도시가 자기들의 발밑에 묻혀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1748년 봄 한 농민이 자기의 포도밭을 파다가 괭이끝이 어떤 굳은 물건에 걸리여 뽑아지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진흙과 돌을 파헤치니 괭이가 금속궤를 꿰뚫고있었고 궤안에는 녹거나 절반 녹은 금은장식품들과 옛돈이 가득차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력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발굴과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오랜 시일에 걸치는 방대한 발굴사업끝에 2000년 가깝게 땅속에 묻혔던 도시의 륜곽이 드러나게 되였다.

도시에는 수많은 살림집들과 함께 당시에 쓰던 생활도구들과 문화재들이 나왔고 큰 규모의 경기장, 수십개의 빵집, 100여개의 술집과 많은 목욕탕들 그리고 무역에 리용되던 시장거리, 극장도 발굴되였다.

유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건물은 도시의 동쪽에 있는 비스바쎈신전이다. 신전의 대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홀이 있으며 홀뒤에는 4개의 줄기둥이 세워져있는 뜨락이 있다. 뜨락은 응회암으로 쌓은 울타리로 둘러싸여있는데 울타리는 벽돌로 기둥을 쌓아 보강했고 담장면은 석회가루를 바르고 장식으로 거짓창문을 설치했다. 뜰안의 바닥에는 돌을 깔지 않고 다만 고인물을 뽑는 작은 도랑만을 내였다.

이곳의 기본건축물은 뜨락뒤의 높은 단우에 벽돌을 쌓아 만든 크지 않은 신전건물이다.

량쪽의 층계로 올라 신전안에 들어가면 원래 신상을 세웠던 받침대가 있으며 그앞에는 대리석제단이 있다. 제단의 주위에는 부각장식을 하였는데 가운데부분의 부각은 수소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면을 묘사한것이다.

그 부각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계수나무가 두그루 새겨져있다.

이 신전은 황제의 령혼을 받들기 위해 건설하던것이였으나 채 준공되기도 전에 화산폭발로 묻혀버렸다.

유적에서 많이 발굴된 대중목욕탕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있다.

어느 한 십자길어구에 있는 대중목욕탕유적이 처음으로 참관자들에게 개방되였다.

목욕탕의 건축규모는 크지 않으나 얼마 파괴되지 않았다. 고대로마시대 목욕탕은 사회의 각이한 계층이 모이는 곳이였으며 사람들은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군 했다. 궁륭식천정으로 된 목욕탕안에는 현대의것을 방불케 하는 난방설비가 있으며 실내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찬물대야와 더운물대야도 설치되여있다.

경기장과 극장건물도 비록 파괴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리해를 가지게 한다.

폼뻬이유적에서 발굴된 하나하나의 건물과 유물들은 고대로마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보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오늘 폼뻬이유적은 하나의 거대한 고고학박물관으로 되고있다.

진시황릉과 병마무덤

진시황릉은 중국 사안시성 시안시 린둥구의 리산기슭에 있는 중국력사상 규모가 가장 큰 릉묘로서 그 규모와 방대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력대의 제왕들은 모두 릉묘의 건설을 중시했는데 진시황도 례외가 아니였다. 그는 39살때인 B.C.221년에 6개 나라를 통일한 후부터 자기의 무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병마무덤은 바로 진시황릉의 한 부분이다.

1974년 여기서는 대량의 병사들과 말모형들이 출토되였는데 모형들은 진짜사람이나 말과 크기가 꼭같았으며 수량도 굉장히 많았다. 순장모형들의 형상은 2천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생동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병마순장모형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모형들은 대다수 굽는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먼저 형태를 만들고 그우에 부드러운 진흙을 씌운 다음 그림을 새기고 색을 입히는 등의 가공을 하였다. 어떤것은 먼저 굽고 후에 붙이고 어떤것은 먼

저 붙이고 후에 구웠다.

진시황릉은 남북너비 350m, 동서길이 345m, 높이 76m, 면적은 120 750㎡에 달한다. 초보적인 조사에 의하면 릉은 내성과 외성 두 부분으로 나뉘여져있다. 내성은 사각형이며 동, 서, 남쪽의 성벽에는 각각 1개의 문이 있고 북쪽에는 2개의 문이 있으며 성의 둘레길이는 약 3 000m이다. 외성은 구형이며 네모서리에 각각 문이 하나씩 있고 둘레길이는 6 200m이다.

진시황의 관은 릉의 지하궁전의 중심에 안치되여있다. 릉묘의 사위에 순장구뎅이와 릉수리인원의 무덤 400여개가 있는데 주요순장구뎅이는 병마모형구뎅이, 마차구뎅이, 진귀한 짐승구뎅이 등이다. 현재까지 여기서 5만여점의 중요한 력사유물이 발굴되였다.

진시황릉은 《20세기 고고학상의 중대한 발견의 하나》이다.

진시황병마모형구뎅이는 3개인데 동쪽으로 성품 품(品)자 형태로 배렬되여있다. 그중 제일먼저 발견된것은 1호구뎅이로서 그 깊이는 약 5m, 동서길이 230m, 남북너비 62m, 총면적은 14 260㎡이다. 그 량쪽에 각각 2호, 3호 병마모형구뎅이가 있다. 진시황병마순장모형구뎅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군사박물관으로 불리우고있다. 순장모형구뎅이는 5m 깊이의 구뎅이바닥에 3m당 하나씩 동서방향으로 무게받이벽을 세웠고 병마모형들을 벽사이공간에 정연하게 배치되여있다.

1호구뎅이안에는 약 6 000여개의 사람과 말모형이 있는데 그것들은 고리형의 방진을 이루고 질서정연하게 서있다.

구뎅이동쪽끝에는 석줄로 횡대를 지은 무사모형들이 손에 활과 쇠뇌를 들고 선봉부대마냥 서있다.

2호구뎅이는 1호구뎅이 동북쪽에 ㄱ자모양으로 배치되여있으며 동서길이 96m, 남북너비 84m, 총면적 6 000㎡로서 구뎅이안은 1호구뎅이와 같으나 다만 진배치가 더 복잡하고 병종도 상대적으로 더 완비되였다.

2호구뎅이의 진은 기병, 전차, 보병으로 구성된 부대로서 세개의 구뎅이중 가장 멋있는 진이다.

3호구뎅이는 1호구뎅이 서쪽끝의 북쪽에 오목할 요(凹)자모양으

로 배치되여있는데 면적은 520㎡로서 65개의 사람모형과 4두마차가 출토되였다. 3호구뎅이의 배치상태로 보아 총지휘부처럼 보이나 다만 아직 완공되지 못했을뿐이다. 3호구뎅이의 모형들은 대부분 머리가 없으며 말모형도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못하다. 이로부터 3호구뎅이가 이전에 인위적인 파괴를 당했다는것을 알수 있다. 진나라때 벌써 지휘부를 독립시켰다는것은 고대군사전술이 매우 발전하고 성숙되였다는 징표로서 이곳은 고대군사력사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헨죠 다로유적

모헨죠 다로는 B.C.3000～B.C.1500년경에 륭성하였던 인다스문화(하라파문화)의 대표적인 도시유적이다. 1923년에 파키스탄의 신드주 인다스강기슭의 모헨죠 다로(《죽음의 언덕》이라는 뜻)에서 발견되였다. 사방 1.6㎞ 지역에서 고대도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약 10m의 너비를 가진 큰 도로가 시내 동서, 남북으로 나있고 너비 3～5m에 이르는 도로들이 그사이를 종횡으로 뻗어갔다. 길을 따라서 벽돌로 축조한 하수설비가 있으며 길 량쪽에는 벽돌로 견고하게 지은 장방형의 집터들이 정연하게 배렬되여있다. 서쪽에는 주로 공공건물과 고관의 주택들이 있고 동쪽에는 일반주택들이 있다. 대부분의 집들에는 목욕탕까지 있으며 도자기로 만든 관으로 하수도에 련결되여있다. 무슨 목적으로 지었는지 모를 규모가 큰 건물과 도시중앙에 력청을 써서 방수대책까지 한 길이 12.2m, 너비 7.3m, 높이 2.5m의 장방형의 공동목욕탕이 있다.

이러한 유적들로 미루어보아 당시의 도시계획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이밖에도 금, 은, 청동, 도자기로 만든 장식들과 그릇들, 인두쓰문자라고 부르는 아직 해득하지 못한 모양글자가 새겨져있는 인장들과 돌조각인물상들이 발굴되였다.

한때 번영하던 이 도시는 B.C.2500년경에 노예를 비롯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과 아리아인의 침입으로 쇠퇴멸망하였다. 이 유

적의 발견은 고대인디아문화가 강가강류역에서가 아니라 인다스강류역에서 발생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시짱고원의 고대문화가 말해주는것

지구의 가장 엄혹한 자연속에서 살고있는 시짱고원의 짱족인민들도 고대로부터 자기들의 독특한 언어와 풍속, 력사와 문화, 예술을 창조하였다.

중국 짱족자치구의 수도인 라싸에 있는 부다라궁전은 오랜 력사와 함께 그 독창적인 건축양식과 축조기술 그리고 짱족의 고유한 수많은 유적유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고대문명은 건축유적이나 유물만이 아니라 신화와 전설,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사상과 세계관 등 모든 문화의 유기적인 집합체이다.

고대그리스의 올림피아유적과 파르테논신전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듀쎄이유스》와 함께 세상에 알려지고있으며 인디아의 아쟌타석굴과 타지마할릉묘는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르타》와 함께 빛을 뿌리고있다.

짱족인민들이 건설한 부다라궁전도 서사시 《게세르영웅전》과 함께 인류문화사에 기록되고있다. 《게세르영웅전》은 그 규모에서 《일리아드》(15 693행), 《오듀쎄이유스》(12 110행), 《라마야나》(48 000행), 《마하바르타》(20여만행)을 다 합친것보다 4배나 되는 120권에 100만행이 넘는 대서사시이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시짱고원은 동쪽의 한족문화, 남쪽의 인디아문화, 서쪽의 아랍문화령역에 둘러싸여있다. 고대로부터 발전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짱족인민들은 그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민족고유의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엄혹한 자연과 맞서고 복잡다단한 사회력사적사변들을 헤쳐오면서도 자기 민족의 고유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켜온 이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며 창조적인 힘과 지혜이다.

짱족인민들속에서 전해오는 천지창조신화를 보면 지구의 가장 높고 험한 대지에서 창조된 유구한 문화의 독창성을 엿볼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히말라야산맥은 원래 낮은 곳은 바다이고 높은 곳은 언덕이였다. 언덕에는 수림이 무성하였고 수림속에는 기이한 화초들이 다투어 자라고있었다. 이곳에는 사슴과 령양, 들소들이 무리지어 뛰놀았고 두견새, 종달새, 화미조가 즐겁게 우짖었다. 멀리 첩첩한 산봉우리에는 흰구름이 감돌고 세상은 한없이 상서롭고 평온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바다에는 머리가 다섯개달린 거대한 룡이 나타나 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수림을 파괴하였으며 짐승들을 습격하여 온 세상을 재난에 빠뜨렸다.

이때 하늘에서 다섯떨기의 채색구름이 날아오더니 다섯명의 선녀로 변하여 룡을 쳐부시고 만물을 구원하였다. 그러자 세상에 모든 새, 짐승과 벌레, 물고기들이 모여들어 선녀들에게 이 세상에 남아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것을 간청하였다.

다섯선녀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세상에 남아서 다섯개의 산으로 변하였다. 취안선녀봉은 주물랑마봉의 신이 되여 인간세상의 모든 지혜를 주관하였고 길수선녀봉은 사람들의 행복과 수명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정혜선녀봉은 농사를, 시인선녀봉은 목축업을, 관영선녀봉은 재산을 주관하였다.

이 다섯선녀는 시짱의 풍설속에 우뚝 솟아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었다.

이 전설은 시짱고원의 자연에 대한 경건한 감정과 풍부한 상상력이 결부되여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다.

짱족인민들속에서 전해오는 오랜 민요인 《스리파재우가》에도 자기들이 사는 고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술적대답을 찾아볼수 있다. 스리파라는 말은 세계, 우주를 의미하며 재우가는 송아지를 잡는 노래라는 뜻이다.

물음: 스리파가 송아지를 잡을 때
　　　대가리를 베여 어디에 두는가?
　　　나는 모르니 가수에게 묻게나
　　　스리파가 송아지를 잡을 때
　　　꼬리를 베여 어디에 두는가?
　　　나는 모르니 가수에게 묻게나
　　　스리파가 송아지를 잡을 때
　　　가죽을 벗겨서 어디에 두는가?
　　　나는 모르니 가수에게 묻게나

대답: 스리파는 송아지를 잡을 때
　　　대가리를 베여 높은 곳에 놓는다네
　　　그래서 산봉우리가 소소리 높아졌다네
　　　스리파는 송아지를 잡을 때
　　　꼬리를 베여 산골짜기에 꽂는다네
　　　그래서 수림이 울창하게 되였다네
　　　스리파는 송아지를 잡을 때
　　　가죽을 벗겨서 땅우에 펼쳐놓는다네
　　　그래서 대지가 평탄하게 되였다네

의인화수법으로 된 이 민요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물의 근원을 밝히는 한편 스리파에 대한 경의와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있다.

시짱의 목축민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그들이 애지중지 여기는 집짐승들에게서 오는것이라고 여기고있다. 자기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구체적인 존재를 놓고 가장 멀고도 큰 세계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이런 창조적지혜는 고대의 원시인들이나 현대인이나 다같이 가지고있다.

이렇게 보면 시짱고원뿐아니라 지구의 그 어디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고대로부터 찬란한 문화가 꽃펴난 그 원동력이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적힘에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게 된다.

종교의 허위를 발가놓다

종교는 인류력사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을 좀먹었다.

교회는 없는 하느님을 믿게 하려고 성서를 신성화하고 웅장한 교회당들을 지었으며 엄격한 계률을 정하고 성대한 종교의식도 거행하였다.

그래도 과학을 믿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종교의 허위성을 꿰뚫어보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타협없는 투쟁을 벌렸다.

무당을 징벌한 서문표

중국에서 B. C. 408년에 서문표라는 사람이 업성의 군수로 임명되였다.

서문표가 업성에 가보니 성안이 어수선하고 인구도 적었다. 그는 그곳 백성들을 불러다 물어보았다.

《이곳이 어찌하여 이리도 한적한고?》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설명하였다.

《실은 이곳에 장하라는 큰 강이 하나 있사온데 장하의 물신선을 강숙부라 부르옵니다. 무당의 말에 의하면 강숙부가 아릿다운 처녀를 좋아하여 해마다 한번씩 처녀에게 장가를 든다고 하옵니다. 강숙부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어야 우리 백성들이 비바람의 피해를 면하고 풍년이 들지 그렇지 않다간 큰물이 나서 곡식을 몽땅 밀어버리고 사람들도 다 죽게 한다고 하옵니다. 그리하여 관리들과 량반들이 해마다 우리한테서 세금을 거두는데 그 량은 무려 수백냥에 이르옵니다. 관리들은 거두어들인 세금중에서 20~30냥만을 강숙부가 장가드는데 쓰고 나머지는 무당과 나누어가지는줄로 아옵니다. 무당은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고운 처녀를 골라 〈이 처녀는 마땅히 강숙부의 색시가 되여야 한다.〉고 찍어

놓은 다음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옷을 지어주옵니다. 그리고는 강기슭에 집을 짓고 처녀가 거기서 살게 하옵니다. 그러다가 강숙부가 장가들 때가 되면 처녀를 집안에 둔채 그 집을 통채로 강에 밀어던지옵니다. 얼마동안 떠내려가던 그 집은 강물에 가라앉고마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있는 집들에서는 딸을 데리고 먼 타향으로 가버리군 하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새 군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음, 올해 강숙부가 장가드는 날이 오면 나한테 꼭 알려라. 나두 바래워줄테다.》

드디여 강숙부가 장가드는 날이 왔다. 서문표도 강가로 나왔다. 높고낮은 관리들과 량반들, 백성들모두 2 000～3 000명이나 강숙부가 장가드는 의식에 참가하였다.

의식을 주관하는 70살이 넘은 큰무당이 10여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서있었다.

서문표는 큰무당에게 《강숙부의 신부가 될 처녀를 데려오라. 생김새를 좀 봐야겠다.》고 말하였다.

큰무당은 제자를 시켜 신부를 데려왔다. 서문표는 처녀를 한참 보고나서 《이 처녀는 곱지 않다. 큰무당은 수고스러운대로 강에 들어가 강숙부에게 미녀를 다시 골라 모레 보내겠노라고 여쭈어라!》하고 호령을 쳤다.

그러자 무사들은 큰무당을 안아 강에 집어던졌다.

그 무당은 물속에서 몇번 허우적거리다가 가라앉고말았다.

얼마후 서문표가 또 호령하였다.

《무당이 어찌하여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고? 다시 한사람을 들여보내여 독촉하게 하라!》

그리하여 제자 한명을 또 강에 집어던졌다. 이렇게 련속 3명의 제자를 물속에 집어던졌다.

또 얼마후 서문표가 말하였다.

《녀자들이 일처리를 할줄 모르니 돈을 거둔 량반들이 수고스럽지만 한번 갔다오게 하라!》

그러자 무사들이 달려가 큰무당과 휩쓸려다니며 돈을 거둔 몇몇

관리들을 붙잡아 강에 던져버렸다. 또 얼마동안 기다렸다. 서문표는 머리를 돌리고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는고?》하고 물었다.

사람들을 속여 제 배를 채우던 토호관리들은 제발 자기들을 강에 집어던지지 말아달라고 이마가 터지도록 절을 하며 빌었다.

서문표는 이때에야 비로소 엄하게 말하였다.

《물속에 무슨 강숙부가 있단 말이냐? 무당과 네놈들은 강숙부가 장가든다는 명분을 내걸고 얼마나 많은 녀자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재산을 긁어모았는고? 죄많은 그놈들은 이미 징벌을 받았다. 차후로 누가 또 강숙부가 장가든다는 말을 꺼내면 그놈들이 가서 강숙부를 만나보게 하겠노라!》

이때로부터 업성에서 더는 물신선이 장가든다는 소리가 없어졌고 떠나갔던 백성들도 돌아왔다고 한다.

◦유 모 아◦

성모가 잘못 알았다

종교의 설교는 어느것이나 현실생활과 맞지 않았지만 그것을 맞추어 설명하는것이 전도사, 목사, 신부, 주교들의 임무였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일할수 없었다.

비가 그냥 내리던 어느 여름날 빠리에서는 날이 개이기를 기원하는 례식이 진행되고있었다. 례배당에서 성모 쥬네비에바(도시의 보호신)의 조각상을 안아내오고 사람들의 행렬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리를 지나갔다. 그런데 날이 개이기는 고사하고 또 소나기가 쏟아져내렸다.

당황해진 주교가 큰소리로 말하였다.

《성모께서는 우리가 비를 달라고 하는줄로 잘못 아셨소.》

령혼불멸설에 대한 왕충의 론박

중국 동한시기의 철학가 왕충(27—약 97)은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미신을 비판한 담이 크고 지식이 있는 학자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령혼은 죽지 않고 귀신으로 변한다고 믿고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귀신을 보았다고 하면서 귀신의 생김새와 옷차림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꼭 같다고까지 말하였다.

왕충은 그들을 조소하며 물었다.

《당신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령혼이 귀신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가 입은 옷도 령혼이 있어 귀신으로 변한단 말이요? 옷은 넋이 없어 귀신으로 될수 없으니 누가 만약 진짜로 귀신을 보았다면 그것은 뻘건 알몸뚱이로서 한오리의 실도 걸치지 않아야 옳겠는데 어떻게 아직 옷을 입고있는가요?》

그는 상대방이 입을 벌리지 못하게 반박을 주었다.

왕충은 또한 이렇게 미신설을 반박하였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몇천년이 흘렀는지 모르오. 그동안 죽은 사람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소? 만약 사람이 죽어 귀신으로 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길가에는 가는 곳마다 귀신일것이요. 사람이 만약 귀신을 볼수 있다고 한다면 귀신은 몇백만, 몇천만이여서 온 방안마다 가득, 온 뜨락마다 가득, 큰 거리와 나루터들에도 귀신들만 가득찬것이 보여야 할것이요. 그러나 몇사람이 귀신을 보았는가요?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둘은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말은 자체모순에 빠져있소.》

어떤 사람이 변명하듯 말하였다.

《누가 죽으면 모두 귀신이 된다던가요? 다만 죽을 때 마음속에 한을 품고 정신이 흩어지지 않아야 귀신으로 변한단 말이요. 옛책에도 씌여있지 않소. 춘추시기에 오나라왕 부차가 오자서를 가마솥에 넣고 삶아서 강에 던졌다고 말이요. 오자서는 원한을 품고 죽었는데 그 마음속의 원한이 귀신으로 변했소. 그래서 해마다 가

을에는 밀물이 일어 그의 분노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귀신이 없다고 말할수 있소?》

왕충이 말하였다.

《오자서의 원쑤는 오나라왕 부차요. 오나라는 멸망하고 오나라왕 부차도 이미 죽어버렸는데 오자서가 아직 누구에게 억울함을 고소하며 누구에게 성을 낸다는거요? 오자서가 만약 진짜로 귀신으로 변하여 밀물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있다면 그는 왜 큰 가마속에 있을 때 물을 밀어버리고 나오지 못했겠소?》

왕충의 론박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말도 못하게 하였다.

부귀는 응당한것이 아니다

중국 제나라 무제의 아들인 소자량은 경건한 불교도였다. 그는 중들이 불교경전을 말해주는것을 특별히 듣기 좋아하였으며 다

◦**유 모 아**◦

중의 자비심

새매가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갔다. 급해맞은 참새는 념불을 외우고있는 중의 팔소매안으로 날아들어갔다.

중은 참새를 손에 쥐고 기분이 좋아서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참새고기를 먹게 되였구나.》하고 중얼거렸다.

참새는 눈을 감고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중은 참새가 죽은줄로 알고 손을 폈다. 그러자 참새는 푸드득하고 날아갔다.

중은 멀리 날아가는 참새를 바라보며 제법 자비심을 베풀어주는듯 《나무아미타불, 내가 한 생명을 구원해주었구나.》하고 중얼거렸다.

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도록 하였다.

어느날 소자량은 연회를 차려놓고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과 이름있는 학자들 그리고 불교에 정통한 중들을 초대하였다.

방금 식사를 끝내자 소자량은 중들을 보고 경전을 해설하라고 하였다. 한 중이 나서서 해설을 시작하였다.

사람이 생각할수도 있고 말할수도 있는것은 《신》이 몸에 붙어있기때문이다. 이 《신》이란 바로 넋이며 사람의 넋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소멸되여도 그의 넋은 살아있어 또 다른 물건에 가붙는다. 등등의 내용이였다.

소자량은 들으면서 득의하여 좌중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그의 눈길이 한사람에게 멎더니 얼굴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범진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서 비웃는 기색을 보았던것이다.

소자량은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물었다.

《범진, 당신은 법사의 말이 틀린것 같소?》

범진은 가만히 웃고나서 말하였다.

《나는 그가 말하는것을 리해 못하겠습니다. 나는 다만 사람의 정신과 육체는 분리될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을뿐입니다. 육체가 있어야 정신이 있으며 사람이 죽으면 몸은 다 썩어버리면서 정신도 따라 없어지는데 어디에 또 무슨 〈래생〉이 있다는겁니까?》

소자량은 성이 나서 말하였다.

《너는 입에서 나오는대로 마구 지껄이지 말아라. 만일 원인에 의한 응당한 결과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째서 어떤 사람은 부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며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는거냐?》

범진은 듣고나서 주저없이 정원에 활짝 핀 꽃나무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인생은 바로 저 나무에 달린 꽃과 같이 어떤것은 바람에 날려 방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화분에 떨어지고 어떤것은 울타리안에서 떠돌아다니며 어떤것은 변소에 떨어집니다. 도대체 꽃한테서도 행위의 선악을 구별할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부귀하고 내가 가난한것은 서로 다른 환경을 만난데 불과할뿐인데 어째서 원인에 의

한 응당한 결과라고 말합니까?》

범진의 이 말에 소자량은 한마디 대꾸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범진이 자리를 뜨는것을 보고만 있었다.

범진의 론박은 빈부귀천의 사회적모순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으로는 되지 못했지만 그것이 전생의 응당한 결과라고 하는 종교의 설교가 부당하다는것을 까밝힌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였다.

공격에는 공격으로

알리기에리 단떼의 대표작인 장편서사시 《신곡》은 《지옥》, 《련옥》, 《천당》의 세편으로 구성되여 종교의 세계를 그리고있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생활은 당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는 자신이 종교를 믿지 않았을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다 거짓이라고 보았다.

어느 종교모임에 참가했던 단떼는 깊은 사색에 잠겨있던 나머지 성찬식을 할 때 꿇어앉는것을 그만 잊어버렸다. 일부 신자들이 곧 주교에게 뛰여가서 그가 일부러 하느님을 깔보았다고 하면서 엄벌을 내릴것을 제의했다.

단떼는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다 듣고나서 말하였다.

《주교님, 나는 오히려 그들이 하느님을 모욕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만이 아니라 이 눈으로도 하느님을 우러러보았는데 저 사람들은 그 눈을 다름아닌 나한테 팔고있었군요.》

천동설을 짓부셔버린 과학자

뽈스까의 천문학자 미꼴라이 꼬뻬르니끄(1473－1543)는 종교가 내세우고있던 천동설－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놓여있고 태양을 비롯한 천체들은 하루에 한번씩 지구를 돌고있다는 주장을 짓

부셔버리고 처음으로 지동설—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다른 천체들이 1년에 한번씩 돌고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종교가 왜 천동설을 내세웠는가?

종교에 의하면 지구는 하느님의 유일한 창조물이며 지구의 모든 사물현상들은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 운동변화한다. 말하자면 지구는 하느님의 절대적존재와 의지를 구현하고있는 천체였다. 그러므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있다는 천동설은 하느님의 존재와 절대성을 증명하는것으로서 종교의 교리와 완전히 부합된다.

이 천동설은 이미 2세기에 엘이스칸다리아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체계화되여 교회의 철저한 보호를 받아왔다. 천동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단자로 몰려 가혹한 형벌을 면할수 없었다.

그러나 허위는 아무때건 밝혀지기마련이다.

당시 천체들의 운동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고 행성들의 운동자리길을 계산하자면 매우 어렵고 복잡하므로 이 지구중심설에 의문을 품고있었다.

꼬뻬르니끄는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을 하였다. 그는 자연에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것이 없다고 믿고있었다. 그러므로 행성들의 운동이 그렇게 복잡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행성들이 원을 따라 돌고있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간단한 운동이다. 이로부터 그는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있다는 천동설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돌고있다는 지동설을 내놓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지동설은 과학발전사에서 특출한 발견이였을뿐아니라 종교의 절대적권위에 전면도전하여 그 기초를 허물어버린 혁신적인 사상이였다. 이러한 지동설이 교회의 마음에 들리 없었으므로 꼬뻬르니끄는 자기의 리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꼬뻬르니끄는 오래동안 망설이다가 자기의 견해를 지동설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그저 력서를 만드는 계산방법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이렇게 서술한 자기의 책을 도이췰란드(당시 프로

씨아)의 뉴른베르그에서 출판된 《천체의 운행론》 제4권에 포함시켜 세상에 내놓았다.

책이 출판되였을 때 꼬뻬르니끄는 심하게 앓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책을 겨우 만져보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때가 1543년 5월 24일이였다.

교회는 꼬뻬르니끄의 책이 출판된 후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있다가 그가 세상을 떠난지 70여년이 지난 1616년에 지동설을 지지하는 모든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그러나 때는 늦었고 과학적진실을 가리울수는 없었다.

종교재판에서 이긴 아리아

유럽의 중세기 500년은 종교의 무지와 몽매, 폭력이 지배한 암흑시대였다. 당시 교회는 왕권의 우에 군림하여 사회의 모든것을 좌지우지하였다. 교회는 상설적인 재판기관까지 만들어내여 진보적인 사상가들과 과학자들, 무신론자들, 이단자들뿐아니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1231년에 법왕 그레고리9세는 종교재판기관을 법왕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었으며 1252년부터는 심문과정에 고문이 허용되여 무법천지의 폭행이 란무하였다. 지금 로마법왕청에 보관되여있는 종교재판기록은 무려 4 500권이나 되는데 그 내용은 아직까지도 비밀속에 묻혀있다. 력사가들은 가혹한 종교재판에서 최소한 100만～1 000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였다고 추측하고있다.

하여 인민들속에서는 수다한 일화와 전설, 유모아들이 창작되여 교회의 위선과 협잡, 부정부패를 폭로하였다.

아래의 일화는 력사에 악명을 떨친 종교재판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종교재판에서는 범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관이 《생》이라고 쓴 글쪽지와 《사》라고 쓴 글쪽지를 병안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에게 임의의것을 뽑게 하였다. 만약 피고가 《생》이라고 쓴 글쪽지를 뽑으면 석방시키고 《사》라는 글쪽

지를 뽑으면 즉석에서 처형하였다.

법관은 그런 심판을 《신의 재판》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공정한 재판이라고 공포하였다.

그런데 아리아라는 청년이 이 재판법을 반대하였다.

그는 이런 제비뽑기방법의 재판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게 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응당 받아야 할 징벌을 모면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아리아는 이런 종교재판을 반대하면서 반종교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종교가 법과 같이 사회생활전반을 지배하고있던 중세기에 이렇게 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종교재판소는 정부당국과 결탁하여 아리아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어느날 법정에서는 아리아를 공개재판하였다. 그 시기 명성이 높았던 아리아에 대한 재판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

◦ **유 모 아** ◦

어미도 같이 끌어왔어야지

신자인 한 농민이 자기의 신앙심을 보여주려고 양새끼를 승려에게 끌어왔다. 어미의 품에서 떨어진 양새끼는 계속 매매 하고 울었다. 승려는 동정어린 표정으로 말하였다.

《원 불쌍도 해라. 울음소리가 애처롭구나.》

《제가 이 양새끼를 가져올 때 어미는 더 슬프게 울었지요. 그리고 제 새끼에게 가려고 너무 태질을 해서 고삐가 다 끊어질번 했습니다.》 하고 농민이 서글프게 말하였다.

《이렇게 무정하다구야!》 승려가 그를 꾸짖었다. 《넌 왜 그것들을 갈라놓았느냐? 어미도 같이 끌어왔어야지.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울어대지 않을게 아니냐!》

여들었다.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법관은 이미 규정된 법률대로 병에다 두개의 종이쪽지를 넣은 다음 아리아에게 어느 하나를 뽑으라고 하였다.

법관은 아리아를 향하여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은 네놈이 죽고야말것이다.)

종교재판소는 미리 누구도 모르게 두 종이쪽지에 다 《사》자를 써놓아 아리아가 살아날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던것이였다.

아리아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마련이다.

아리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병에 다가가 병속에서 종이쪽지 한개를 손에 잡히는대로 꺼내고는 그것을 펼쳐보이지 않고 입에 넣어 씹어삼켜버렸다.

아리아가 꺼낸 종이쪽지가 《사》자인지 《생》자인지 사람들은 알수 없었다.

군중들의 불같은 독촉에 못이겨 법관은 하는수없이 남은 글쪽지를 병안에서 꺼내여 펼쳐보았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자였다.

《법률》대로 말한다면 아리아가 삼켜버린 그 글쪽지는 《생》자여야 하였다. 이렇게 되여 아리아는 승리하여 자유를 얻게 되였다.

《자유요! 아리아!》

사람들은 환성을 올리면서 아리아를 에워싸고 법정문을 나섰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딸리아의 물리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는 수다한 과학적발견과 발명으로 근대고전력학의 기초를 닦아놓음으로써 인류의 과학문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물질의 비중을 재는 류체력학적천평과 공기를 리용한 기체온도계를 발명하여 물리적현상들을 수량화하여 인식할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떨어지는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꼭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것과 날아가는 탄알의 자리길은 포물선으로 된다는것을 밝혀내고 흔들이의 등시성의 법칙도 발견하였다.

그는 자기가 만든 천체망원경으로 력사상 처음으로 달표면과 태양흑점을 관찰하였으며 금성의 위상변화, 목성의 4개 위성을 발견하고 은하수는 많은 별들의 집합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천체들에 대한 과학적관찰에 근거하여 꼬뻬르니끄의 지동설을 지지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다.

당시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우주가 회전한다는것은 종교교리의 핵이였으므로 갈릴레이가 주장하는 태양중심설은 교회의 필사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로마에서 종교재판을 두번씩이나 받고 자기의 주장을 철회한다는것을 서약하라고 강요당하였다.

그는 교회의 강요에 응하였지만 재판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의 이 말은 교회의 탄압과 외곡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전은 막을수 없다는 그의 신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는 말년에 눈까지 멀고 교회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지만 오직 과학연구에만 전심하다가 78살에 사망하였다.

미래의 세계는 나의 가치를 알게 될것이다

이딸리아의 유물론철학자이며 천문학자인 죠르다노 브루노(1548−1600)는 꼬뻬르니끄의 지동설을 깊이 연구하고 그를 적극 선전하면서 종교적인 몽매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는 15살때 나뽈리의 도미니크수도원에 들어가 신학을 배웠으나 종교의 허위성을 깨닫고 과학 특히 천문학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사상이 불건전하다는 리유로 수도원에서 쫓겨난 후 이딸리아와 스위스, 프랑스와 영국 등 여러곳을 방랑하면서 꼬뻬르니끄의 학설을 적극 선전하였고 일련의 저서들도 집필하였다.

꼬뻬르니끄의 지동설은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본 제한성이 있

었다. 브루노는 지동설을 적극 선전하면서도 우주의 무한성을 주장함으로써 꼬뻬르니끄의 오유를 시정하였다. 달의 표면이나 겨우 볼수 있는 망원경밖에 다른 관측기구가 없었던 당시에 우주의 무한성을 주장한 브루노의 탁월한 견해는 물질내부의 무한성에 대한 그의 주장과 함께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식을 확립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그의 견해는 있지도 않은 하느님의 존재와 역할의 절대성을 내세우는 종교의 교리와 전면배치되였다.

브루노는 스위스의 쮸리히에서 체포되여 로마로 압송되였으며 종교재판에서 8년간 감금형을 받고 갖은 박해를 받았다. 교회는 브루노에게 자기의 주장을 버리라고 강박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그러자 교회는 다시 그에게 화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화형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불은 나를 굴복시키지 못할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나를 리해할것이며 나의 가치를 알게 될것이다.》라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그 예언대로 후대들은 브루노의 사상과 투쟁을 높이 평가하여 그가 화형당한 자리에 동상을 세웠다.

오늘도 죠르다노 브루노의 동상은 종교적몽매의 암흑시대에 대한 고발장으로 되고있으며 사람들에게 과학적신념에 대한 영원한 믿음을 안겨주고있다.

《다윈의 개》

챨즈 다윈(1809－1882)의 《종의 기원》은 이 세상의 다양한 생물종들이 하느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자연적인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종교의 허위성을 여지없이 분쇄하였다.

다윈이 진화론을 내놓은 후 학슬리(1825－1895)는 그것을 적극 지지하여 스스로 그 보급에 나섰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교회와 격렬한 투쟁을 벌렸다. 그의 활동에 의해 진화론은 세계에 널리 알려지였다.

교회는 그러한 학슬리를 《다윈의 개》라고 모독하고 그의 활동

에 대해서는 《다윈의 개싸움》이라고 비방하였다.

어느날 한 교인이 론문변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서는 학슬리를 증오에 찬 눈길로 쏘아보며 소리쳤다.

《조심하라, 다윈의 개가 온다!》

그러자 학슬리는 《옳소. 내가 바로 도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나운 사냥개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청하지 않은 목사

볼테르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볼테르는 84살에 중병에 걸려 침상에 눕게 되였다.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치고싶었다.

이때 한 목사가 찾아와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다.

그는 목사에게 물었다.

《난 당신을 청한적이 없는데?》

《볼테르선생, 나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당신을 위해 기도를 하고 참회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하고 목사가 대답하였다.

한생을 참되고 떳떳하게 살아온 볼테르는 죽음을 앞두고 참회할것이 없었다.

그는 불쾌해서 목사에게 따지고들었다.

《그러면 당신의 증명서를 좀 보여주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소.》

물론 목사가 하느님의 증명서를 가지고있을리 만무하였다.

목사는 무안해서 물러가고말았다.

조상에 대한 금지

도이췰란드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1797－1856)는 유태인출신이였다.

그는 1843년경부터 맑스, 엥겔스 등과 접촉하면서 맑스주의를 리

해하게 되였으며 혁명가로 자라났다. 그는 자기의 시작품들에서 귀족들과 신흥부르죠아지들, 승려들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격동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러한 하이네에게 어느날 한 그리스도교신자가 이렇게 조롱하려들었다.

《당신과 예수는 같은 종족의 자손인데 나라면 응당 궁지를 가졌을거요.》

그의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서 착취와 억압을 참고 견디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그에 대한 하이네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가 이 민족의 자손이라는 거짓말을 다시는 믿지 않겠소.》

사과가 잘못 그려졌다

게베리는 도이칠란드의 식물학자였다.

한번은 그가 친구의 집에 손님으로 간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직업은 화가였다. 그 친구는 자기의 신작인 《죄악에 빠져》를 한창 마무리하고있었다. 이 그림은 성경책에서 태고적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은 모습을 형상하였다. 이브의 손에는 그들부부를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사과가 쥐여져있었다.

그림을 들여다보던 게베리가 갑자기 큰소리로 말했다.

《사과가 잘못 그려졌소!》

《어째서 말이요?》 친구가 놀라서 물었다.

게베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브가 아담에게 주는 이 사과는 고작 80년전에야 새로 재배육성한 품종이란 말이요.》

화가는 그의 말을 부정할수 없었다. 게베리의 이 말은 종교선전의 허위를 신랄하게 폭로하고 조롱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졌다.

모두가 종교선전을 들으러 오는것은 아니다

슈래앨마흐는 도이췰란드의 철학자인 동시에 신학자였다. 박식한 그의 설교는 많은 청중을 끌어당기군 하였다. 청중들속에는 대학생들은 물론 귀부인들과 하급관리, 고관대작들도 있었다.

그는 후날 이렇게 고백하였다.

《그들은 다만 종교선전을 듣기 위해서만 오는것이 아니였다. 나의 청중에는 대학생으로부터 귀부인, 관원들까지 있었는데 대학생들은 나의 설교를 듣지만 녀인들은 대학생들을 훔쳐보고있었으며 관원들은 또 관원들대로 귀부인들을 넘겨다보고있었다.》

유다의 얼굴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는 이딸리아문예부흥기의 저명한 화가이며 과학자였다.

다 빈치는 당시의 시대적조건으로 종교주제화를 많이 그렸지

◦**유 모 아**◦

내가 하느님이다

어떤 사람이 광장에 나서서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소리쳤다. 불잡혀온 그에게 대왕은 엄하게 말하였다.

《지난해에 이곳에서 자기가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자처하던 놈이 교수형을 당한것을 모르는가?!》

그러자 그 행인은 대왕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하였다.

《그대는 옳게 행동했도다. 지난해에 나는 그 누구도 보낸 일이 없었도다!》

만 그의 그림에서 묘사된 인물형상들은 모두 현실속의 산인간들이였다. 그가 창조한 인물형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현실에서 자유와 행복을 창조하도록 고무추동하였다.

다 빈치가 명작 《최후의 만찬》을 창작할 때였다. 다 빈치는 온종일 깊은 명상에 잠겨 거닐다가는 매우 굼뜨게 붓을 움직이군 하였다. 그를 감독하던 교회당의 신부는 다 빈치가 온종일 거닐기만 하면서 빈둥거리고있다고 밀라노대공에게 일러바쳤다. 대공앞에서 다 빈치는 조용하게 그 리유를 설명해주었다.

《화가는 반드시 구상을 먼저 한 다음에야 붓을 듭니다. 나는 지금 두사람의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고있는데 하나는 정결한 예수의 얼굴이고 하나는 멋없이 큰 얼굴인데 바로 배신자 유다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됐습니다. 대공님과 신부님을 함께 뵈오니 두사람의 얼굴모양이 순간에 떠오릅니다.》

법왕의 요구를 거절한 미술가

부오나로띠 미껠란젤로(1475－1564)는 문예부흥기시기의 이딸리아의 조각가, 화가, 건축가이다.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당시 봉건적착취와 압박속에서 벗어나려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투쟁정신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유럽미술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미껠란젤로가 법왕의 청탁으로 바띠까노궁전의 천정에 그림을 그릴 때였다. 법왕은 그에게 카톨릭교의 선각자와 성인들의 옷을 황금색으로 칠하여 그 고귀함을 알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거절하였다.

《그들은 본래 가난한 사람들이였습니다!》

또 한번은 그가 한폭의 대형벽화를 창작하고있을 때 법왕은 그림속의 인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사람을 보내여 수정할것을 요구했다.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림의 인물들을 수정하는것은 별치 않은 일이니 그 로인에게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이나 잘 수리해달라고 부탁하시오!》

고의적으로 그렇게 그렸다

이딸리아문예부흥기시기의 저명한 화가이며 건축가인 싼찌오 라파엘로(1483－1520)는 바띠까노궁전에서 벽화를 그렸다. 한번은 붉은 옷을 입은 두명의 주교가 들어오더니 벽화의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너무나도 빨갛게 그렸다고 시비를 걸었다.

라파엘로는 즉시 붓을 멈추고 대답했다.

《존경하는 주교나으리, 나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당의 주교노릇을 하는것을 보고 그분들도 못내 부끄러워하기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은 상상할수 없다

토마스 에디슨(1847－1931)은 비록 반종교선동가는 아니였지만 자기의 수많은 과학기술적발명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한번은 어떤 기자가 지금 한창 건설하고있는 교회당에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가고 물어보았다.

이것은 심중히 대답해야 할 물음이였다. 교회에서는 벼락을 하느님이 내리는 천벌이라고 설명하는데 정말로 하느님이 있다면 신성한 교회당이 벼락을 맞을수 없을것이고 따라서 피뢰침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피뢰침을 세워야 한다고 대답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것으로 되였다. 그래서 에디슨은 《피뢰침은 하느님의 뜻이기때문에 꼭 설치해야 한다.》고 대답해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가고 물었다.

《중량도 없고 질량도 없으며 형상도 없는것은 곧 상상할수도 없지요.》하고 에디슨은 대답하였다.

그의 이 말은 곧 세상에 알려져 하느님이란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었다.

제왕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

력사적으로 모든 통치자들은 인민들속에서 종교를 장려하면서 성서를 보급하고 화려한 교회당을 짓고 성대한 종교행사도 조직하는 등 자기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칼5세(1500－1558)도 례외가 아니였다.

어느날 황제의 하인은 새 소식을 알리려고 왕을 찾아 기도실로 달려갔다. 그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있는 왕을 보리라고 생각했다.

◦유 모 아◦

꾸짖을 권리가 없다

주교가 탄 마차가 농민의 달구지와 마주쳤다. 농민은 달구지에 짐을 많이 실었기때문에 길을 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 주교의 마부는 농민에게 욕지거리하고 농민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참을성을 잃은 주교는 머리를 내밀고 건장한 체구를 가진 농민을 보며 소리쳤다.

《내 보기엔 당신이 살은 졌는데 교양은 덜된것 같구만!》

《나리.》하고 농민이 대꾸하였다. 《먹는건 우리 땀으로 먹고 교양이야 당신들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칼은 기도실에서 자기가 수집한 시계들을 꺼내여 상우에 펴놓고는 그것들의 시간을 맞추고있었다.

뜻밖의 광경을 보고 놀란 하인은 멈춰서는것을 잊고 상을 들이받았다. 상우에 있던 값진 시계들이 기도실의 돌바닥에 와르르 휘뿌려졌다.

《아하…》 칼은 당황하지도 성을 내지도 않고 조용히 말하였다.

《시계를 맞추는 비결이 아주 단순한것이였구만.》

제왕들이 종교를 믿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수단으로 리용한 전형적인 실례는 프랑스왕 앙리4세였다고 말할수 있다.

앙리4세(1553－1610)는 프랑스 부르봉왕조의 시조이다.

그는 나바르공국의 녀왕 쟌느의 아들로 태여나 신교(프로테스탄트교)교육을 받았으며 신교의 우두머리로서 종교전쟁에도 참가하였다.

당시 프랑스에서 신교와 구교의 종교적대립과 알륵은 절정에 이르고있었다.

앙리4세는 구교도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구교도인 앙리2세의 딸과 결혼하였다.

결혼후 며칠 지나서 구교도들에 의한 신교도의 학살사건이 일어나자 앙리4세는 구교도로 개종하여 간신히 곤경을 면하였다. 그러나 4년동안 빠리에서 감금생활을 하였다. 감금생활에서 겨우 도망쳐나온 그는 다시 신교도로 개종하였다. 그는 신교도의 우두머리로 되여 카톨릭동맹의 앙리3세와 맞서싸웠으며 1589년 그가 죽자 프랑스왕위를 넘겨받고 부르봉왕조를 세웠다.

그러나 빠리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구교도들은 앙리4세가 왕위에 오르는것을 견결히 반대해나섰다. 그래서 그는 1593년에 다시 구교도로 개종하고 대관식을 한 다음에야 빠리로 들어올수 있었다.

그는 자기가 배반한 신교도들과 화해하기 위해 낭뜨칙령을 발포하여 신교와 구교의 동등권을 인정하였지만 도이췰란드의 왕권이 강화되는것을 제압할 목적으로 도이췰란드신교도들을 지지하였다. 결국 그는 1610년 구교도에 의하여 암살되였다.

신부가 상금을 받다

신부들은 하느님을 받들기 위해 신부로 된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신부로 되였다. 물론 부자는 천당에 가지 못한다고 설교하면서 돈을 벌자니 퍼그나 고심해야 하고 머리도 써야 하였다.

프랑스의 어느 한 작은 교회당에 찾아왔던 국왕 앙리4세는 신부가 부르는 찬송가를 듣고 감동하여 《재청!》하고 소리쳤다.

신부는 더 큰소리로 다시 노래를 불렀다. 교회당은 음악당으로 된듯싶었다. 신부의 노래가 끝나자 국왕은 그에게 금화 몇잎을 상으로 주었다. 상을 받은 신부는 깜찍하게 왕을 쳐다보고 소리쳤다.

《재청입니다, 전하!》

왕은 할수없이 신부에게 두배나 되는 상을 또 주었다.

토마스 모어의 최후

인류의 리상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환상적으로 묘사한 유명한 책 《유토피어》를 쓴 토마스 모어의 최후는 비참하였다.

그는 영국귀족의 칭호까지 받았지만 궁중음모에 걸려 영국의 국교가 아닌 카톨릭교를 믿는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였다. 그의 책은 죽어서 천당에 가려고 할것이 아니라 지상에다 리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것을 설교한것으로 해서 교회의 배척을 받았다. 그의 정치적, 사상적적수들은 모어에게 교수형을 언도하였다.

모어는 교수대로 끌려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교수대로 오를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올라갈수 있게 좀 도와주시오. 내려오는건 당신에게 부탁하지 않을테니.》

이것은 그의 마지막말이였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생을 마치면서 하느님앞에 일생에 지은 죄

를 참회하면서 용서를 비는것이 일반적이였으나 토마스 모어는 신을 믿지 않고 떳떳하게 교수대에 올라갔다.

법왕이 되기 전과 된 후

한때 로마에서는 몬딸리예추기경이 어떻게 법왕으로 선출되였는가 하는 수수께끼같은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몬딸리예추기경은 허약한 늙은이처럼 보였다. 그는 곧 맞게 될 죽음과 타협하기라도 한듯 맥없이 머리를 수그리고 다녔다. 그런데 이러한 외모가 뜻밖에도 그가 법왕으로 선출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다른 추기경들은 앞으로의 경쟁을 위한 투쟁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하여 늙은 몬딸리예를 법왕으로 선출했던것이다. 그들은 몬딸리예가 법왕노릇을 오래 해먹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몬딸리예는 법왕이 된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으며 몸도 곧아지고 걸음도 힘이 있고 손짓, 몸세까지 위엄이 있어보이였다.

《법왕나으리.》 하고 실망한 메디치추기경이 말하였다. 《당신에게는 몬딸리예추기경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난 그때 바띠까노의 열쇠를 찾느라고 발밑을 열성스레 내려다보았댔소.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되였소. 나의 흥미를 끄는것이 땅에는 더는 없으니까.》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이 이야기는 카톨릭교회 상층부의 추악한 권력다툼과 예수의 사도라고 자처하는자들의 진면모를 폭로하고있다.

도적물건은 성모 마리아의 선물

프로씨아령지에 있는 한 교회당에서 신자들이 희사한 금붙이와 기타 값나가는 물건들이 잃어졌다. 그러다가 한 신부의 집에서 그것들을 발견하였다. 신부는 명백한 물질적증거앞에서 할 말이 없

었다. 그러나 법정에 나선 그 신부는 성모 마리아가 직접 자기에게 그 귀중품들을 선물하였다고 뻔뻔스럽게 말하였다.
어떻게 판결할것인가?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신이 없다는것으로 되기때문에 재판관들은 난처해지였다.
궁지에 빠진 재판관들은 신학자들을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것을 의뢰하였다. 신학자들은 망설이던 끝에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모 마리아가 독실한 신자에게 그쯤한것을 능히 던져줄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러자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였다.
《왕의 이름으로 관대히 용서하면서 앞으로 성모와 기타 성인들에게서 선물을 받는자는 극형에 처하기로 한다.》

목사의 설교

한번은 마크 트웨인이 교회당에 가서 례배를 구경하였다. 제단우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목사의 장광설이 언제 끝나겠는지 막연하였다.
참을성을 잃은 마크 트웨인은 목사에게 롱담을 걸었다.
《목사선생, 당신은 정말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 언젠가 책에서 본것을 다시 듣게 되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 말이 책에 씌여있다니? 절대로 그럴수 없소!》 하고 목사가 대답했다.
《그건 정말입니다. 한글자도 틀리지 않는데요.》 마크 트웨인이 그루를 박았다.
《그러면 그 책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후에 마크 트웨인은 정말로 책 한권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사전》이였다.

성경책과 토지가 바뀌여졌다

남아프리카의 뚜뚜주교는 198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다. 그는 인종차별을 반대한 투사였을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지가 풍부한 사람이였다.

1984년 겨울, 뉴욕에서 진행된 그리스도교의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우리들의 손에는 토지가 있었다. 그런데 선교사가 〈우리모두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립시다.〉하고 말하여 우리들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였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사이에 세상은 거꾸로 되였다. 즉 우리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있게 되고 그들에게는 토지가 있게 되였다.》

그의 이 말은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를 침략할 때 앞장세웠던 선교사들의 교활한 책동을 폭로하면서 약소민족과 근로인민들에 대한 지배와 략탈의 수단으로 복무한 종교의 반동적본질을 생동하게 까밝히고있다.

유 모 아

신부의 장점은 어데 있는가?

교활한 신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여윈 말을 어수룩한 농민에게 팔려고 하였다. 그는 온갖 미사려구를 다 늘어놓으며 있지도 않는 말의 장점을 이야기했으며 지어 그 말을 타고 재간을 피우려고까지 하였다.

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농민이 히죽이 웃으며 말했다.

《신부님, 당신이 만약 저를 속이려고 한다면 이 말우에 오를것이 아니라 설교석에 올라가야지요.》

들장난 교회의 조작품

1988년 4월 21일 로마법왕청은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이딸리아 또리노시의 지오바니 바리스교회당에 보관되여있는 《예수의 수의》를 탄소년대측정법으로 감정해보도록 허가하였다.

이 《예수의 수의》라는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죽은 후 그의 시체를 덮었던것이라고 하는 너비 1.2m, 길이 4.36m의 보통천이다. 교회는 물론 많은 교인들은 이 수의를 진짜로 믿고있었다. 그것은 이 천에서 좌우로 대칭되여있는 검붉은 반점들이 멀리서 보면 배에 두손을 얹어놓고있는 남자의 모습을 나타내고있기때문이다. 수의는 절반으로 접힌 상태에서 한쪽은 사람의 앞면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사람의 등을 보여준다. 이 검붉은색의 반점들은 천으로 시체를 둘러감았을 때 상처에서 나온 피자국이라고 설명한다.

이 수의가 진품이라는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 어떤 사람은 8년동안이나 품을 들여 천에 박힌 인물의 모습을 콤퓨터로 재현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천에 나타난 인물의 주인공은 키가 181㎝, 몸무게 79㎏, 잘 발달된 근육의 소유자이며 나이는 30～45살로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와 일치한다는것이다.

지어 한 대학교수는 수의의 주인공과 예수와의 련관자료를 종합하여볼 때 수의의 주인공이 예수가 아닐 확률은 2 250억분의 1로서 수의가 틀림없이 진품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수의에 대한 이러한 설명과 론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활동과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큰 작용을 놀았다. 때문에 카톨릭교에서는 이 수의를 신성불가침의 성물로 취급하여왔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과 론거들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이 수의가 진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의를 만든 천의 제조년대가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의 활동년대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유럽사람들의 생활에서 수의가 나타난것은 14세기부터이므로 이러한 의심은 누구나 다 가

질수 있었다.

로마법왕청이 오래동안 주저하던 끝에 수의를 감정해보도록 허가한것은 온 세계 카톨릭교신자들의 압력을 더는 묵과할수 없게 된데다가 수의가 진짜라고 판명되면 카톨릭교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의에서 우표크기만한 천쪼박을 3개 베여내여 영국의 옥스포드대학, 스위스의 폴리테크대학, 미국 터슨대학에 보내였다. 이 세 대학 실험실들에서는 제각기 탄소년대측정법으로 천의 제작년대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하나와 같았다. 즉 수의는 유럽에서 수의가 처음으로 나타난 그 시기인 1260년부터 1390년사이에 만들어졌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이 《예수의 수의》라는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의 활동년대로부터 1200여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낸 조작품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

이 수의가 만들어진 바로 그때는 유럽에서 종교의 전횡과 사기협잡이 판을 치던 암흑시대였다.

로마법왕청은 이 과학적분석결과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처럼 교회에서 성물로 취급하는 수많은 유물들이 가짜라는것이 드러난 실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유 모 아

죽은 승려가 어디에 갔는가?

승려를 만난 자리에서 농민이 물었다.

《승냥이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인가요, 천당인가요?》

《물론 지옥으로 가지.》 승려는 깊이 생각지도 않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그건 왜 묻느냐?》

《예. 얼마전에 승냥이가 한 승려를 잡아먹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승려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었습니다.》

권력과 재부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력사의 전기간 통치계급은 권력과 재부를 가지고 인민대중을 지배하여왔다. 자기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통치자들은 권력과 재부를 신성화하였고 폭력으로 보호하였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통치자들의 권력과 재부가 인민대중으로부터 빼앗아낸 추악한것이며 온갖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는것을 꿰뚫어보았다. 력사에 이름을 남긴 어느 명인치고 권력과 재부앞에 굴복한 사람은 없었다.

재산을 멸시한 쏘크라테스

고대그리스의 철학은 쏘크라테스(B. C. 469－B. C. 399)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보고있다. 쏘크라테스는 그 어떤 저서도 남긴것이 없으며 그의 학설은 제자들인 플라톤, 크세노폰의 글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졌다.

그는 《내가 안다는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것이다.》, 《자신을 파악하라.》는 좌우명을 내걸고 자기의 학설을 전개하였다.

지식과 도덕을 중시한 그에게는 권력과 재부, 명예 같은것이 안중에 없었다.

어느날 갖가지 물건들이 쌓인 장마당을 돌아보던 쏘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없어도 살아갈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은 돈을 헤프게 쓰는 한사람이 늘 돈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면서 쏘크라테스에게 어데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꿀수 없겠는가고 물었다. 그의 말에 쏘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자기의 소비량을 줄여서 자신에게서 꾸구려.》

쏘크라테스의 사회적명성이 높아지자 귀족들은 저마다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다.

명절을 맞으면서 허영심에 들뜬 한 장군이 쏘크라테스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여왔다. 가난에 시달리던 안해는 기뻐하면서 선물을 받자고 말하였으나 쏘크라테스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자존심은 장군의 허영심에 짝지지 않소. 그러니 이런 선물은 거절해야 하오.》

왕의 결함을 비꼬아말한 적황

중국 전국시기에 위나라가 중산지역을 통합하자 위문후는 이 새로 점령한 땅을 자기 아들에게 봉하였다.

어느날 위문후는 여러 신하들에게 《내가 어떤 군주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물었다.

신하들은 모두 《인자한 왕이올시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대신 임좌만은 다른 의견을 표시하였다.

《폐하가 중산을 점령한 후에 동생에게 봉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에게 봉하니 어찌 인자한 군주라고 말할수 있겠소이까?》

위문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성을 냈다.

임좌는 그 모양을 보고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렸다.

위문후가 또 적황에게 《내가 어떤 군주냐?》하고 물어보자 적황은 《나는 폐하가 인자한 군주라고 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문후가 왜 그렇게 보는가고 묻자 적황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듣건대 세상사람들은 모두 위나라의 군주는 인심이 후하고 대신들은 대바르고 정직하다고 믿고있습니다. 방금 임좌가 왕앞에서 그렇게 솔직히 말을 하였는데 저는 이 점 하나를 놓고봐도 폐하가 인자한 왕이라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위문후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빨리 임좌를 도로 청해오라고 하고는 직접 아래에 내려와 그를 맞아주었다고 한다.

대왕을 조롱한 화가

고대그리스의 알렉싼드로스대왕(B. C. 356－B. C. 323)은 세계를 통치할것을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침략전쟁을 벌려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는 동방의 군주들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전쟁에 시달린 인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였다.

어느날 화가 아뻴레스의 화실에 찾아온 알렉싼드로스는 자기의 초상화를 마뜩지 않게 바라보고나서 화가에게 한마디 칭찬도 하지 않은채 나가버렸다. 그러자 화가는 말없이 그 그림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 왕의 말에게로 다가갔다. 말은 그림을 알렉싼드로스대왕으로 알고 소리를 지르며 화가에게로 달려왔다.

아뻴레스는 대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님, 말이 당신보다 예술을 더 잘 아는군요.》

철학가도 마음만 먹으면…

고대그리스의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B. C. 384－B. C. 322)는 무서운 독학가로서 수많은 학설을 내놓아 고대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돈밖에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허황한 학문만 연구하는 말공부쟁이라고 헐뜯었다.

어느해 여름 철학가는 성능이 좋은 착유기를 비밀리에 세내였다. 그해 올리브생산량은 껑충 뛰여올랐고 도처에서 착유기를 필요로 하게 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착유기를 비싼 값으로 다시 세내준 결과 많은 돈을 벌게 되였다.

《풍부한 지식은 풍족한 재산을 가져다준다.》

철학가는 자기를 조소하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의 목적은 돈에 있는것이 아니라 다만 철학가도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싶었을뿐이다.》

당신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고대그리스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사람 하나가 살고있었다. 그는 자기 집 현관문에 이런 내용의 패쪽을 걸어놓았다.

《오직 도덕있고 고상한 사람만이 이리로 들어갈수 있다.》

그 글을 본 철학가 디오게니소스가 랭소를 지으며 집주인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총명과 재부

이딸리아의 시인 알리기에리 단떼(1265—1321)는 유럽에서 중세문학을 총화하고 문예부흥에로의 길을 열어준 첫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의 대표작은 20여년에 걸쳐 완성한 서사시 《신곡》이다.

단떼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는데 한번은 베니스집정관이 단떼를 희롱해볼 생각으로 그를 연회에 초청하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앞에는 모두 큰 물고기가 놓여있었으나 단떼의 앞에는 작은 물고기들뿐이였다.

그는 포크로 작은 물고기를 찍어들고는 몇마디 수군거리였다.

집정관은 그의 행동이 이상하여 왜 그러는가고 물었다.

《나의 친구 몇명이 2년전에 바다에 빠져죽었는데 그들이 바다밑에서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안부를 물었소이다.》

《그것들이 뭐라고 말하오?》 집정관은 흥미가 동해 물었다.

《자기들은 방금 태여났기때문에 그때의 일을 알수 없으니 좀더 큰 물고기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집정관은 허거픈 웃음을 짓고나서 하인에게 당장 큰 물고기를 가져다주라고 분부하였다.

단떼는 총명하였지만 오직 학문연구와 문학창작에만 전념하면서

일생 가난하게 살았다.
왕의 수하에 있는 한사람이 단떼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당신은 총명의 최고봉인데 아주 가난하고 나는 비록 미련하지만 부유하지요. 대체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소?》
그의 의도를 알아차린 단떼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앞으로 나는 세상에 다시 태여난대도 당신같은 인생은 살지 않겠소.》

누가 제일인가?

중국 제나라시기의 유명한 서예가인 왕정건은 진나라시기의 명필인 왕희지의 4대 자손이였다. 그의 행서, 해서는 조상의 필법을 이어받아 조예가 매우 깊었다.
당시 제나라의 태조 숙도성도 역시 서예에 능하였는데 스스로 비범하다고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글씨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왕정건이 이때문에 감히 자기의 재능을 나타낼수 없었다.
어느날 제나라 태조는 왕정건을 불러다 서예를 겨루어보자고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국왕과 신하 두사람은 모두 진지하게 한폭의 해서를 썼다.
다 쓰고난 후에 제나라 태조는 오만한 말투로 왕정건에게 물었다.
《대답해보라. 누가 제일이냐?》
왕정건은 자기가 못하다고 억지로 말하고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히 황제가 못하다고 말하여 그의 미움을 살수도 없었다.
그는 미간을 찌프리며 대답하였다.
《소신의 필법은 신하들중에서 제일이고 페하의 필법은 황제들중에서 제일입니다.》
태조는 듣고나서 하는수없이 웃고말았다.

왕은 결심한대로 한다

프랑스국왕 루이14세가 시인 부알로를 초청하여 자기가 지은 시를 보여주면서 그의 의견을 물었다.

《폐하, 당신은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락후한 시를 쓰겠다고 결심하시더니 끝내 성공하였습니다.》하고 부알로는 대답하였다.

장군과 병사

나뽈레옹을 타승한것으로 하여 이름난 영국의 군사가 웰링톤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랭랭하였으며 처벌문제에서도 무자비한것으로 하여 병사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한번은 그가 자그마한 실수로 깊은 강물에 빠졌는데 한 병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구원하였다. 감동된 웰링톤은 병사에게 소원이 무엇인가,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병사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였다.

《크게 바라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각하께서 오늘 있은 일을 비밀에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건 왜?》

웰링톤은 리해가 되지 않아 두눈을 크게 떴다.

《내가 각하를 구원했다는것을 병사들이 알면 나를 이 강물속에 처박아 죽일것입니다!》

병사의 말은 자못 의미심장하였으나 그때 웰링톤이 무엇을 생각하였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었다.

감탄을 삼가하라

환상소설 《갈리버려행기》를 쓴것으로 하여 유명한 영국의 랑만주의작가 죠나싼 스위프트(1667−1745)에게는 친구가 많았는데 그중에는 트래트부인도 있었다.

어느날 작가와 한담을 나누고있던 부인이 불쑥 감탄을 터뜨렸다.

《스위프트씨, 런던의 공기가 대단히 좋구만요!》

이 말을 들은 스위프트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부인, 영국에서는 제발 그런 말을 삼가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가는 이곳의 신사들이 공기세까지 받으려고 할것입니다.》

영국통치배들의 반인민적정책에 대한 스위프트의 이 신랄한 비판은 《갈리버려행기》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나라들의 통치배들에 대한 풍자적인 묘사에 그대로 구현되였다.

왕면이 내놓은 수수께끼

중국 원나라시기의 유명한 화가이며 시인인 왕면은 어렸을 때 지주집 소몰이군을 하였다.

년말에 가서 품삯을 받으려고 하니 지주놈은 그에게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하나 풀면 네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면은 아무 주저도 없이 그렇게 하자고 대답하였다.

《옛날 가난뱅이 몇명이 김을 매다가 보석그릇 하나를 얻었다. 모두들 〈보배덩이로구나. 우리 나눠가지자.〉하고 말했지. 그래서 그들은 보석그릇을 깨서 한사람이 한덩어리씩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값진 보석그릇을 깨면 한푼의 가치도 나가지 못한다는것을 몰랐지. 그 결과 이 가난뱅이들은 여전히 가난한 빈털터리로 남게 되였다. 이 수수께끼를 한글자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지주가 《수수께끼》를 내놓자 왕면은 《당신의 말은 〈가난뱅이는 보배덩이를 나누어가져도 가난하다.〉는 뜻인데

이건 나눌 분자밑에 보배 패자를 쓴 가난할 빈〈貧〉자가 아니요?》하고 당돌하게 말하였다.

지주놈은 할수없이 왕면에게 한해 품삯을 내주지 않을수 없었다.

왕면은 소몰이군으로 일하면서 갖은 천대를 다 받았지만 짬짬이 글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렸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지주놈에게 찾아가 엉뚱한 제의를 하였다.

《주인님, 제가 옛말을 하나 할테니 그것을 한글자로 표현해 보십시오. 주인님이 맞추면 제가 일년내내 일해주고요, 맞추지 못하면 나는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겠수다.》

지주놈은 쪼끄마한 놈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하는 생각에서 히죽이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왕면은 말하였다.

《옛날 한 부자가 타곳에 가서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려고 했지요. 그는 인부 한사람을 고용하여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부자는 돈을 내고 인부는 힘을 내여 1년후에 번 돈을 7:3으로 나눈다고 썼지요.

1년동안 장사를 했더니 과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인부가 번 돈을 나누자고 할 때 부자는 그 돈을 혼자서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부자는 우는상을 하며 〈어제 우리가 헤여질 때 놀란 말이 달려들어 돈넣은 궤짝을 마구 밟아서 편포짝처럼 만들어놓았다.〉고 말했지요. 이렇게 되여 그 돈은 몽땅 부자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런 뜻을 담은 글자는 어떤 글자일가요? 알아맞춰보십시오.》

지주놈은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종시 그 글자를 알아맞추지 못하였다.

그러자 왕면은 《그 부자는 인부에게 말이 돈궤짝을 밟아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했지요. 말 마자에 납작할 편자를 합하면 속일 편자(騙)로 되지 않소? 부자는 항상 사람들을 속이니까요.》하고 말하며 웃었다.

왕면은 이렇게 옛말을 리용하여 지주놈을 한바탕 골려주었다. 지

주놈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으나 화풀이할수도 없었다. 결국 왕면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누가 국왕인가?

깊은 수림속에서 사냥을 하던 프랑스왕 앙리4세는 자기 수행원들과 좀 떨어져서 돌아다니다가 나무밑에 앉아있는 한 농민과 만났다.

《넌 거기서 무얼 하느냐?》

왕이 농민에게 물었다.

《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숲속에서 왕이 사냥을 한다더군요. 난 아직 왕을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싶어서 그럽니다.》

《그럼 내 말에 올라타라구.》하고 앙리가 그를 불렀다. 《내가 사냥나온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 데려다줄테니 거기서 왕을 만나보게나.》

말을 타고가면서 농민은 자기가 왕을 어떻게 알아볼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그건 아주 간단하지.》 앙리가 설명하였다. 《머리들을 보라구. 왕이 나타나면 모두가 모자들을 벗게 되는데 왕만이 모자를 쓰고있을거네.》

그들은 어느덧 사냥야영지에 도착하였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모자를 벗고 머리숙여 인사를 하며 그들을 맞았다.

《그래 이제는 왕이 누군지 알겠나?》 앙리가 자기 동행자에게 물었다.

《난 정말 모르겠군요.》 농민이 심드렁해서 말하였다. 《당신과 나만이 모자를 쓰고있지 않습니까.》

귀족이 만든 조각상

이딸리아의 공작 꼬지모 메디치는 한가한 시간마다 조각을 하였는데 하루는 넵투누스신의 조각을 만들어 그것을 플로렌스의 한 광장에 내다세우라고 명령하였다. 며칠후에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만난 그는 자기의 《넵투누스》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고 물었다.

《완전한 종교적인 감정입니다.》하고 미술의 거장은 대답하였다.

《왜 꼭 종교적인것이라고 보오?》

《난 이 조각상을 보면 볼수록 하느님께 이렇게 큰 대리석덩어리를 못쓰게 만든데 대해 우리의 친근한 공작님을 용서해주십사하고 빌군 합니다.》

궁지에서 벗어난 라블레의 지혜

프랑스 인문주의작가 프랑쑤아 라블레(1494—1553)는 5부작 장편소설 《가르강뜌아와 빵따그뤼엘》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로 중세유럽문학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봉건왕권과 카톨릭교회, 반인민적전쟁, 온갖 형태의 몽매와 광신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였다.

한번은 로마에서 빠리로 돌아오면서 라블레는 그만 려비를 다 써버리고말았다. 그래서 리옹의 한 려관에 든 다음부터는 숙박비를 낼수가 없었고 려행을 계속할수도 없었다. 그때 이 유명한 작가는 한가지 궁리를 해내였다. 그는 자기 호실의 잘 보이는 곳에 《왕의 독약》, 《왕비의 독약》, 《왕자의 독약》이라고 쓴 봉투들을 널어놓았다. 얼마 안있어 그 무서운 봉투들을 발견한 려관주인은 음모자가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알렸다.

이렇게 되여 라블레는 경찰의 엄중한 감시속에서 빠리로 호송되게 되였다.

빠리에 와서야 그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나서 자기의 계교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이 일이 궁중에 알려지자 작가와 친분관계를 가지고있던 왕 프란체스코1세는 《독살자》를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그의 려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호탕하게 웃었다고 한다.

녀황제를 조롱한 볼테르

프랑스의 계몽학자이며 작가, 철학가인 볼테르(1694－1778)는 로씨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으며 이로 하여 로씨야의 녀황제 예까쩨리나2세와 편지거래까지 하였다.

녀황제는 볼테르가 뾰뜨르1세를 높이 평가하여 책까지 썼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뾰뜨르1세는 알려진바와 같이 로씨야를 근대화하기 위하여 평민들처럼 수공업에 종사하는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손재간도 능하였다. 그래서 예까쩨리나2세는 뾰뜨르황제를 어느 정도 닮아보려고 선반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상아로 담배갑을 겨우 깎은 그는 그것을 볼테르에게 선물로 보내였다.

볼테르는 뜨개질하는 녀자를 초청하여 얼마간 배운 다음 자체로 비단실로 된 녀자양말을 떠서 뻬쩨르부르그에 보내였다. 이 선물과 함께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었다.

《폐하, 가만 보니 폐하는 남자들이 하는 일에 달라붙은것 같습니다. 당신의 모범을 본받아 나도 역시 녀자들이 하는 일에 달라붙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선물에 보답할 다른 도리가 없었기때문입니다.》

볼테르의 자존심

볼테르가 프로씨아국왕 프리드리흐2세의 궁전에 체류하고있던 때였다.

하루는 국왕이 볼테르에게 배놀이를 같이하자고 청하였다. 갑자기 배밑창이 새는것을 발견한 볼테르는 인차 기슭에 뛰여내렸다.

《참, 당신은 목숨을 몹시도 귀중히 여기누만!》하면서 국왕은 볼테르를 비웃고나서 점잔을 빼며 말하였다. 《난 이것이 전혀 두렵지 않소.》

그러자 볼테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야 응당하지요. 왕은 세상에 많고많지만 볼테르는 한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왕들은 항상 그러하다

유럽에서는 한때 크리스마스연회때마다 콩 한알을 넣은 《왕만두》를 굽군 하였다. 그 콩이 들어있는 만두가 차례진 사람은 연회의 《왕》이나 《녀왕》으로 되여 료리들을 칼로 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군 하였다.

한번은 퐁뜨넬에게 이런 《왕》이 되는 행운이 차례졌다. 그런데 그는 웬일인지 자기앞에 놓인 맛있는 료리들을 참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보며 《왕이 신하들을 잊고있는 모양이군.》하고 롱담을 하였다.

그러자 퐁뜨넬은 《우리의 왕들은 항상 그러하오.》하고 대답하였다.

국왕보다 병사가 지혜로왔다

프랑스국왕 루이15세가 영국대사와 함께 자기 근위대의 보병대를 사열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이들이 바로 우리 국가의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요. 이들중에는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게요.》

《폐하, 그런데 이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영국대사가 물었다.

왕은 말문이 막혀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러자 한 보병이 귀띔해주었다.

《그들은 모두 전사하였습니다!》

나뽈레옹을 비판한 부겐윌

나뽈레옹의 계속되는 침략전쟁으로 하여 프랑스의 국고는 바닥이 드러나고 인민들의 불만이 증대되였다. 특히 지식인들속에서 나뽈레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회계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하여 나뽈레옹은 10년마다 한번씩 학자들과 문학가, 미술가들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을 제정하였다. 이 상때문에 지식인계층속에서는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서로 질시하는 분파들이 생겨났으며 출판물에는 폭로기사들이 련이어 실려 많은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는 등 사태는 황제가 바라는대로 되여가고있었다. 나뽈레옹은 이와 관련하여 이름난 항해가였던 루이 부겐윌에게 물은적이 있었다.

《이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폐하.》 항해가가 대답하였다. 《옛날에는 령리한 사람들의 심심풀이를 위하여 짐승(프랑스어로 〈짐승〉과 〈머저리〉는 동음이의어이다.)들의 싸움을 붙이군 하였는데 지금은 머저리들의 심심풀이를 위하여 령리한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있습니다.》

세번째 머저리는 누구인가?

어느날 로씨야황제의 궁전정원에서 산보를 하던 아락쵸브공작은 나무판에 두명의 남자가 서로 싸우고있는 그림이 그려져있고 그밑에 《두명의 머저리가 싸우고있고 세번째놈은 구경하고있다.》

라는 글이 씌여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아마도 이 그림은 당시 류행되고있었던 주먹싸움을 내용으로 한것 같았다.
그러나 공작은 거기에서 다른 뜻을 엿보았다. 그는 곧 황제 알렉싼드르1세의 방으로 찾아가 이상스러운 그 그림을 꺼내보였다.
황제는 안경을 꼈다벗었다하며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리해할수 없다는 눈길로 공작을 바라보았다.
《저, 폐하. 이 그림이 철저히 금지된것이라는것을 그렇게도 모르시겠습니까?》
코멘 소리로 아락쵸브가 말하였다.
《도무지 리해가 안가는구만, 친절한 알렉쎄이 안드레예비치.》
황제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이 그림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비웃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싸우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시는 폐하께 버릇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은 군주제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 아직도 〈두명의 머저리가 싸우고있고 세번째놈은 구경하고있다.〉는 말에 리해가 안가십니까?》

전기와 세무관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화학자인 마이클 파라데이(1791－1867)는 1821년에 전자기회전실험에 성공하였으며 1831년에는 전자기감응현상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19세기 중엽 전기문명의 려명기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발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있었다.
한번은 영국의 세무관이 거리에서 우연히 파라데이를 만났는데 무작정 조롱하려들었다.
《선생, 도대체 전기라는 물건짝이 무엇에 쓸모있소?》
세무관에게 전기물리학에 대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 파라데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쓸모가 있지요. 당신은 다만 그 전기에서 세금을 거둘 준

비나 하시오.》
오래지 않아 전기문명의 시대가 들이닥치자 세무관은 전기세를 걷어들이기에 바쁘게 되였다.

난 벌금을 물수 없소

챨즈 디켄즈(1812－1870)는 영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이다.
어느날 디켄즈가 한창 낚시질을 하고있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 낚시질을 하십니까?》
디켄즈는 머리를 끄덕였다.
《물고기가 걸리긴 걸립니까?》
《그럼요. 운수가 나쁘지 않지요. 어제만 봐도 한시간동안에 송어를 3마리씩이나 잡았으니까요.》
다소 자랑기가 섞인 디켄즈의 말이였다.
낯선 사나이가 또 물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가요?》
디켄즈는 여전히 깜부기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 거참 유감인데요. 나로 말하면 사냥을 단속하는 검찰관입니다. 당신이 금지된 곳에서 낚시질을 했으니 20￡의 벌금을 내야겠습니다!》
하지만 디켄즈는 수그러들지 않고 맞받아 물었다.
《그럼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검찰관은 머리를 흔들었다.
《모르겠소.》
《나는 작가입니다.》 디켄즈가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벌금을 물릴수 없습니다.》
《그건 어째서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지어내는것이 나의 직업이니까요.》

목공과 신사

영국시인인 죠지 엔뢰는 목공의 자식이였으나 시문단에서 이름을 날려 당시 영국상류계층의 존경의 대상이였다. 그는 결코 자기의 출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언제 어느때나 신사연하기 좋아하는 영국인치고는 매우 드문 일이였다.

한번은 어느 응접실에서 마주친 한 거만한 귀족이 그의 명성을 질투하여 걸고들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목공이였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렇소.》 시인이 대답했다.

《그러면 이상하군요. 당신아버지는 왜 당신을 목공으로 키우지 않았을가요?》

귀족의 고약한 심보를 넘겨짚은 시인은 태연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원래부터 귀족이였는가요?》

《그야 물론.》하고 귀족은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럼 그는 왜 당신을 신사로 키우지 않았을가요?》

면박을 당한 귀족은 자리를 피하고말았다.

녀왕을 골려준 수학자

빅토리아녀왕(1819－1901)시대에 영국은 산업혁명이 추진되여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웠고 식민지강점으로 지구상 식민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되였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사람들모두가 녀왕을 떠받든것은 아니였다.

영국사람인 루이스 캐롤은 옥스포드대학의 수학상급교원이였지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아동소설도 썼다. 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녀왕 빅토리아는 그 책을 재미있게 읽고나서 기쁜김에 앞으로 이 작가의 책들이 출판되면 자기에게 무조건 가져오라고 어명을 내렸다.

오래지 않아 녀왕은 작가의 다음번 책을 받게 되였다. 책의 웃부분에는 《녀왕전하께 드립니다.》라는 필자의 글까지 씌여져 있었다. 호기심에 가득찬 녀왕이 책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런 제목이 큼직하게 찍혀있었다.

《행렬식의 간소화: 한가지 새롭고 간편한 계산법.》

물론 녀왕은 이 수학책의 내용을 리해하기는 고사하고 까다로운 수학기호들을 읽을수도 없었다.

진귀하고 드문 손님

영국의 빅토리아녀왕은 조용한 시골에서의 산보를 즐겨하였다.

오후가 될무렵 시장기를 느낀 녀왕은 시골의 어느 한 상점에서 닭알 두알을 사서 먹었다.

상점주인은 그에게 닭알값으로 2￡를 요구하였다.

깜짝 놀란 빅토리아가 다급하게 물었다.

《닭알 두알에 2￡라니? … 여기 닭알이 그렇게 진귀하고 드문것인가요?》

그 물음에 상점주인은 눈 한번 깜빡 않고 말하였다.

《내 닭알이 아니라 당신이 진귀하고 드문 손님이기때문이지요!》

상점주인이 녀왕을 알아보았는지 아니면 그저 돈많은 귀족부인으로 알았는지는 명백치 않지만 같고같았다.

박식과 어리석음

로씨야의 이름난 학자인 로모노쏘브(1711－1765)는 가난한 어부의 가정에서 태여나 20살이 되여서야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그는 꾸준한 노력으로 과학을 탐구하여 질량보존의 법칙을 발견하였으며 열력학을 개척하고 망원경으로 금성에 대기가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또한 로씨야어와 력사학연구에서도 중요한 저서를 남기였다.

그는 높은 명성을 얻은 후에도 소박한 생활습성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전심하였다.

한번은 멋부리기 좋아하고 제딴에는 총명하다고 자처하지만 무식하기 짝이 없는 한 작가가 그의 옷소매에 구멍이 난것을 보고 이렇게 빈정거렸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박식함을 보여주고있는가요?》

로모노쏘브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대답했다.

《아니, 이것은 곧 당신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있소.》

또 하나의 목숨

영국의 이름난 작가 싸비츠에게는 단골의사가 한명 있었다. 작가는 창작에 심혈을 바치다나니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였고 나중에는 자포자기상태에 이르렀다. 의사는 최후를 앞둔 그에게 병력서를 보여주면서 말하였다.

《내가 만일 당신의 목숨을 구원한다면 무엇으로 보상하시렵니까?》

그는 의사에게 책 한권을 주면서 짐짓 존경을 담아 말하였다.

《나의 또 하나의 목숨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그 책제목은 다름아닌 《싸비츠의 일생》이였다. 그는 일생을 돈이 아니라 문학창작에 바친것을 더없는 궁지로 여기였다.

부자의 몸값

영국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적시인인 죠지 고든 바이론(1788－1824)은 자기 시들에서 봉건유습과 자본주의현실에 대한 강한 반항의식과 투쟁정신을 격조높이 노래한것으로 하여 후세 유럽의 시문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어느날 바이론은 템즈강반을 거닐다가 강물에 빠진 한 부자가 사

람들에 의하여 구원되는것을 목격하게 되였다. 부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구원해준 가난한 사람에게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보수를 주었다. 그들을 에워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부자의 린색함과 배은망덕함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부자를 다시 물에 처넣으라고 소리쳤다.

이때 바이론이 그들을 만류하며 말했다.

《그를 놔주시오. 그는 자기의 몸값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소!》

작가의 대답

영국작가이면서 국회의원이였던 쉘든은 항상 부유한자들의 비난의 대상이였다. 어느날 그는 거리를 산보하던중 두명의 공작과 마주치게 되였다. 그들로 말한다면 평상시에 쉘든을 가리켜 작가출신의 비천한 의원이라고 비꼬던자들이였다. 자못 친절하게 인사를 나눈 한 공작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였다.

《존경하는 쉘든선생, 우리는 마침 당신이 무뢰한인가 아니면 우둔한자인가를 론쟁하던중인데 당신이 대답해주지 않겠소?》

《아! 그렇댔군요.》 쉘든은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뭐 어려울것이 있겠소? 내가 지금 그 두사람사이에 서있으니 그 대답이야 뻔하지 않소.》

희극쟁이와 백치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자본가들의 추악한 몰골과 리면을 풍자비판해온 영국작가 슈버너는 일상생활에서도 권력과 재부앞에서 머리를 숙일줄 몰랐다.

한번은 어느 야회에서 한 자본가가 많은 사람들앞에서 그를 모욕하려고 도발을 걸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대한 희극쟁이들은 모두 위대한 백치

라더군요.》

가시가 박힌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제 보니 당신 역시 위대한 희극쟁이가 분명합니다.》

한번은 어느 연회석상에서 돼지같이 살찐 부자가 늙은데다가 매우 연약한 슈버너를 보며 조롱하였다.

《당신을 보니 당신들의 생활난에 대해 잘 알수 있군요!》

슈버너의 반격 또한 맵짜기 그지없었다.

《당신을 보니 우리들의 생활난의 근원에 대해 잘 알수 있군요!》

슈버너의 걱정거리

어느 한 연회에 참가한 슈버너의 얼굴색은 밝지 못했다. 무엇인가 큰 걱정거리를 안고있는듯한 표정이였다.

그의 옆에 앉았던 한 부자가 리해할수 없다는듯 슬그머니 물었다.

《슈버너선생,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생겼는가요? 그게 뭔지 말해주신다면 지금 당장 100£를 드리겠습니다.》

돈이면 만사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자의 거만성에 기분이 잡친 슈버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근심거리는 단 한푼의 가치도 없는것이랍니다.》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자는 더욱 호기심이 동하여 바싹 다가앉았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습니까? 비밀이 아니라면…》

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슈버너는 짐짓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구두약상표

어느 한 구두약공장주인이 슈버너를 찾아왔다. 공장주는 세상에 유명해진 그의 이름을 자기네가 새로 생산하는 구두약의 상표로 달려고 한다면서 자못 득의양양해하였다.

《이를테면 전세계사람들모두가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자는거지요.》

슈버너는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즉석에서 반문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현대문명이 절정에 오른 오늘까지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는지요?》

국왕을 물리치다

영국국왕 죠지6세가 언젠가 슈버너를 방문한적이 있었다.

최근 날씨로부터 시작하여 몇마디말이 오고갔으나 취미와 기호, 지적수준의 차이로 하여 그들사이에는 때이르게 침묵이 흘렀다.

그럼에도 국왕은 인차 떠나가려는 기미가 아니였다. 슈버너는 곧 주머니에 쌌던 시계를 품안에서 꺼내여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국왕은 하는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죠지6세와 동행했던 한사람이 그에게 국왕을 좋아하는가고 물었다.

《물론 좋아하지. 그는 제때에 자리에서 일어서는것으로 나에게 최대의 기쁨을 주었거든.》

은행가의 혈통

장편소설 《몽떼 끄리스또백작》을 비롯하여 많은 소설을 쓴 프랑스의 랑만주의작가 알렉싼드르 듀마(아버지듀마, 1802－1870)

는 자기의 작품에서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귀족들과 자본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군 하였다.

한번은 심보고약한 한 은행가가 듀마에게 시까슬렀다.

《듣자니 당신은 4분의 1이 흑인혈통이라던데 정말인가요?》

《그렇소.》 그는 단마디로 대답했다.

《그럼 당신 아버지는?…》

《그야 물론 절반이 흑인혈통이지요.》

《할아버지는?》 은행가가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재차 물었다.

《백분의 백이지요.》

《증조할아버지는요?》

《그는 류인원이요.》 자못 엄숙한 대답이였다.

어리둥절해진 은행가가 다시 물었다.

《난 진심으로 물었는데 그렇게 롱을 하는 법이 어디 있소?》

《그게 어째서 롱이란 말이요? 우리 가문이 원숭이로부터 시작되고 당신네 가문은 원숭이에서 끝난거야 죄다 사실이 아니요.》

우둔한 대답

리기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프랑스의 작가 듀마(아버지듀마)는 로씨야를 려행할 때 어느 한 도시에 들린적이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온 기회에 소문이 자자한 책방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책방주인은 몹시 기뻐하였다. 세계적인 대문호가 왔다가면 그만큼 자기네 책방의 위신이 올라갈것이였다. 어떻게 하면 작가의 환심을 살것인가를 궁리하던 책방주인은 눈에 잘 띄우는 책꽂이마다 듀마의 저작만을 가득 채워넣었다.

듀마가 책방을 돌아보니 책꽂이에는 전부 자기의 책들뿐이였다.

《다른 작가들의 책은 없는가요?》

책방주인은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해버렸다.

《전부 팔렸습니다!》

누가 지혜로왔는가?

빠리의 골동품수집가인 안다레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였다. 그는 닭알을 사들인다는 명목으로 주변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매집들의 가장집물들을 세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던중 어느 한 농가에서 중세기의 작은 접시를 발견하였는데 그 집에서는 그것을 새끼고양이의 먹이그릇으로 쓰고있었다.

안다레는 속으로 환성을 올리며 농부에게 말했다.

《당신의 새끼고양이가 참 귀엽군요. 내 아들에게 주고싶은데 파는데 동의합니까?》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농부의 대답이였다.

두사람은 가격을 흥정하였다. 안다레는 고양이값을 물고나서 지나가는 소리처럼 말했다.

《새끼고양이가 이 낡은 접시에 우유를 담아먹는데 습관된것 같은데 함께 가져가도 되겠지요?》

《그것만은 안되오, 선생!》 농부가 기겁을 했다. 《빨리 그 접시를 내려놓으시오. 바로 그것때문에 난 이틀동안에 6마리의 고양이를 팔았단 말이요.》

혼수증세

로버트 코흐(1843－1910)는 도이췰란드의 세균학자로서 현대세균학의 창시자로 불리운다. 그는 결핵병을 연구하여 1882년에 결핵균을 발견하였고 이어 코흐비루스균과 콜레라균을 발견하여 1905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가 베를린의학원 원장을 하던 시기 아프리카에서 일종의 혼수병이 발생하였다.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사람들은 온종일 흐리멍텅해서 잠만 자려고 했으며 정신이 들락날락하다가 죽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병증세는 코흐의 주의를 끌어당겼다.

코흐는 곧 한개 연구소조를 거느리고 아프리카내륙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귀국후 그는 국회의 요청에 의해 한 고급관리의 접견을 받았다. 방안에는 많은 관리들이 쏘파에 앉아있었는데 그들은 코흐의 조사연구보고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하나같이 끄떡끄떡 졸고있었다.

코흐는 쓰거운 웃음을 지으며 비양조로 말했다.

《공연히 아프리카까지 갔댔군. 여기에서도 혼수병이 퍼진걸 모르고…》

코흐의 환자

도이췰란드의 유능한 세균학자인 로버트 코흐는 의술이 뛰여났을뿐아니라 사리에 밝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한번은 황제가 병에 걸리는 바람에 황궁으로 불리워가게 되였다. 코흐를 본 황제는 잔뜩 긴장해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특별한 환자를 치료하던 경험과 교훈에 류의하면서 나를 치료해줄것을 바라오. 그러면 당신에게 큰상을 내리겠소.》

그러자 코흐는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페하, 나는 그 뜻을 따를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대해온 환자들은 병이 있는 황제와 같았으니까요.》

황제가 설계한 군함

도이췰란드황제 윌헬름2세(재위 1888－1918)는 《도이췰란드의 장래는 바다에 있다.》고 하면서 해군을 확장하기에 급급해하였다. 그는 한때 심혈을 기울여 군함을 설계하고나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군함이라고 자랑하였다.

자기의 설계수준을 전문가들에게 뽐내기 위해 도면을 한 선박업자에게 보내면서 그 겉봉에 이렇게 썼다.

《이 도면으로 말하면 내가 여러해동안 사색하고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다.》

얼마후에 전문가의 평가가 붙은 도면이 곧 되돌아왔다.

《폐하, 물론 당신의 군함은 세상 비길데없이 견고하고 위력이 출중하며 아름답습니다. 번개같은 속도를 겸비하고있고 세상에서 제일 위력한 대포를 가지고있으며 돛대 또한 세상에서 최고일뿐아니라 실내설비도 가장 안전하고 리상적인것입니다. 하지만 옥에 티라고 할가 다만 이 군함이 천성적으로 물을 싫어하여 바다에 나가면 가라앉을가봐 두렵습니다.》

발명품추천서

도이췰란드의 음악가 뢰겔은 언제나 재산을 가지고 으시대는 자들을 미워하면서 그자들을 조롱하군 하였다.

어느 한 회사에서 새로운 담배재털이를 발명해냈는데 그것은 피아노곁에다 걸고 쓸수 있게 만들어진것이였다. 회사의 책임자는 이름난 음악가 뢰겔에게 그 발명품을 위해서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청하였다.

《그야 뭐 어렵겠소.》

뢰겔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였다. 그가 쓴 추천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재털이는 한손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한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리상적인 물건이다.》

회사책임자는 무안을 당하고 물러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식의 가치

스탈린츠는 도이췰란드의 이름난 전기전문가였다.

한번은 어느 한 회사의 대형발전기가 고장난적이 있었는데 그 회

사의 지배인은 그를 정중히 초청하였다.

스탈틴츠는 며칠동안 발전기를 관찰하기만 할뿐 전혀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한주일이 지나서야 공정기사에게 발전기 겉뚜껑에 분필로 하나의 흰줄을 긋게 하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뚜껑을 열고 이 선을 따라서 에나멜권선 20바퀴를 줄이시오.》

그의 말대로 하자 놀랍게도 발전기는 정상상태로 되돌아왔다.

지배인은 그에게 수리비가 얼마인가고 물었다. 전기전문가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1만DM의 값을 요구하였다. 깜짝 놀란 지배인이 수리비용이 왜 그렇게 비싼가고 물었다.

스탈틴츠는 이렇게 대답했다.

《분필이 선을 그리는데는 고작 1DM이지만 지식의 값은 9 999DM 이지요.》

개 막 사

도이췰란드의 저명한 극작가인 베르홀트 브래흐트(1898—1956)는 어느 한 문학토론회에서 개막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주최자는 토론회에 대한 축하와 참가자들에 대한 열렬한 환영을 표시하고 일장 연설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의 장황한 연설을 한참이나 늘어놓고서야 마감에 이렇게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브래흐트선생의 개막사가 있겠습니다.》

브래흐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참가자들의 눈길이 그에게 집중되고 기자들이 저마다 사진기샤타를 눌러대며 취재수첩을 꺼내들었다.

《에— 저는 이것으로써 회의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회의장에서 나가버렸다.

백만장자를 초청한 리유

도이췰란드의 대부호인 버크린은 구두수리공출신이였다.

자신의 재부에 한껏 도취된 그는 이름난 피아노연주가 클라크를 집에 초청하여 그의 음악을 감상한 다음 식사에 초대하였다.

식사가 끝나자 주인은 손님에게 또다시 노래 한곡을 부탁하였다. 클라크는 하는수없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며칠후 클라크도 버크린을 집에 청해다가 식사를 하였다. 식사후 음악가는 한짝의 낡은 장화를 꺼내놓았다.

버크린이 어리둥절해하자 클라크가 웃으며 말하였다.

《전번에 당신이 나를 초청한것은 노래연주를 듣기 위해서였다면 오늘 내가 당신을 초청한것은 이 장화를 깁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자의 변호인

이완 쎄묘노브는 로씨야생물학자로서 생리학의 개척자였다. 그는 청개구리 해부를 통하여 가치있는 론문을 많이 발표하였으며 《뇌수의 반사》라는 책을 출판하여 신경생리학에서도 커다란 진보를 이룩하였다.

언젠가 짜리정부는 사람의 신체를 희롱하였다는 죄로 그를 체포하였다. 법정에서 검사는 기고만장하여 《죄과》에 대하여 고아대다가 나중에야 이렇게 말하였다.

《법에 따라 당신은 변호인을 구할수 있소!》

쎄묘노브는 조금도 굽어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청개구리를 불러주시오!》

황제앞에 선 쉡첸끄

우크라이나의 작가이며 미술가인 따라스 쉡첸끄(1814－1861)는 농노의 가정에서 태여나 지주집머슴으로 일했지만 뛰여난 재능이 인정되여 24살에 농노신분에서 해방되였다. 그는 뻬쩨르부르그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미술가로, 시인으로 활동하였으며 반정부비밀단체에 가담한것으로 하여 체포되여 10년간 류배살이도 하였다.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시종일관 농노들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들의 지향과 사상감정을 대변하고 그들을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어느날 로씨야황제가 쉡첸끄를 불러들이라고 어명을 내렸다. 궁전안에는 문무백관들모두가 황제를 향해 허리를 굽히고 서있었다. 시인만이 꼿꼿하게 서있었다.

황제가 성이 나서 물었다.

《넌 대체 어떤 놈이냐?》

시인이 대답했다. 《나는 쉡첸끄입니다.》

시인의 당돌한 태도에 황제의 분노는 극도에 달하였다.

《너는 어째서 허리를 굽히지 않느냐? 국왕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모른단 말이냐?》

그러자 시인은 랭소를 머금었다.

《내가 당신을 보려 한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보려고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의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서있으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정확히 볼수 있겠습니까?》

관리들을 미워한 고골리

고골리(1809－1852)는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짜리로씨야의 봉건농노제도와 착취계급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작품들을 창작하는데 바쳤다.

그의 장편소설 《죽은 넋》, 희극 《검찰관》은 짜리전제제도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신랄하게 폭로한것으로 하여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단편소설 《외투》도 그러한 주제의 작품이다.

어느날 한 관리가 고골리를 찾아와서 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내용인즉 핀란드의 한 가난한 사람이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평생의 소원인 사냥총을 사게 되였다. 그는 총을 가지고 첫 사냥을 떠났으나 자기 소원을 이룬 기쁨에 도취되여 자연경치를 구경하다가 그만 총을 잃어버렸다. 극도로 실망한 그는 그때부터 앓기 시작하여 얼마후에는 죽고말았다.

관리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푼수없이 사냥총을 샀다고 비웃었다.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있던 고골리는 버럭 성을 내며 그 관리를 꾸짖었다.

《당신은 뭐가 그리도 우습소?》

그후 고골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관리들의 추악한 몰골을 폭로하는 소설을 쓰리라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창작된 소설이 바로 단편소설 《외투》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한 관리는 중년이 되도록 관청에서 일했지만 공문을 정서하는 재간밖에 없었다. 그는 다 낡아빠진 자기의 외투를 새 외투로 갈아입으려는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는데 새 외투를 입고 나간 그날밤 강도에게 빼앗기고 고민하다가 죽고만다.

고골리의 이 단편소설은 그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관리들을 정신적불구자, 기형적인간으로 만드는 짜리전제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정신으로 하여 진보적문학계의 찬양을 받았다.

바이올린은 차를 마실줄 모른다

돈많은 귀부인이 이딸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연주가이며 작곡가인 베그니에게 이틀동안 자기 집에 와서 차를 마시자고 청한적이 있었다. 그는 요청에 기꺼이 동의하였다. 귀부인은 《친애하는

예술가선생, 래일 올 때에는 바이올린을 꼭 가지고 오셔야 해요!》 하고 당부하였다.

《그건 왜요?》 베그니는 이상하다는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부인님, 당신은 바이올린이 차를 마실줄 모른다는것쯤은 알고있겠지요?》

베그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음악이 결코 돈많은 부자들이나 통치배들의 유흥거리가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있었다. 이 신념이 또한 그의 노력과 재능의 원천으로 되였다.

손은 어디에 갔는가

에스빠냐의 유명한 화가인 프란씨스꼬 고야(1746－1828)는 전생애에 악을 미워했으며 사랑과 증오가 명백하였고 권세있는자들앞에서 굽신거릴줄 몰랐다.

한번은 국왕이 그를 불러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뛰여난 화가인 당신이 황실에서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당신을 부른것은 우리 온 가족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서다. 잘만 그리면 그대에게 후한 상을 내리련다.》

며칠후 그림을 완성한 고야는 곧 국왕에게 보여주었다. 그림을 들여다보던 국왕은 그만 흠칫 놀랐다. 화폭에 그려진 14명의 사람들중 3명의 사람에게만 손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손이 없었던것이다. 국왕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은?》

그러자 화가가 대답했다.

《나도 그들의 손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왕은 지체없이 손을 그려넣으라고 분부하였으나 화가는 한사코 반대해나섰다. 왜냐하면 고관대작들은 밥을 먹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기때문에 그들에게는 입이 필요하지 손은 없어도 된다는것이였다.

리스트의 도리

마쟈르의 저명한 작곡가이며 피아노연주가인 프란쯔 리스트(1811-1886)가 로씨야를 방문하여 크레믈리궁전에서 자기의 곡을 연주하고있었다. 연주가 시작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짜리는 곁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기분이 상한 리스트는 연주를 멈추었다. 짜리가 왜 연주하지 않는가고 묻자 리스트는 기지개를 켜며 《각하가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도 도리를 지켜 공손하게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응당 나를 향해 인사하라

마쟈르의 어느 한 지방에는 대단히 포악하고 건방진 령주가 살고있었다. 그는 돈과 권세를 턱대고 한가지 규정을 정해놓았는데 길가에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존경을 표시해야 한다는것이였다.

하루는 시인인 뻬뙤피(1823-1849)가 이 령지를 지나다가 공교롭게도 그 령주와 마주치게 되였다.

령주는 기세등등하여 시인에게 따지고들었다.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머리숙이지 않소?》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

《나로 말하면 이 고장에서 제일 돈이 많고 권세도 높은지라 누구든 관계없이 내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오.》

시인은 여전히 머리를 숙이지 않고 령주를 쏘아보았다.

길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인의 당당한 기품에 기가 질린 령주는 자칫하면 망신할가 두려워서 귀속말로 말했다.

《내 주머니에 100Ft(포린트)가 있는데 당신에게 50Ft를 주겠소.

그러니 제발 나한테 머리숙여주시오.》
시인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 50Ft를 받아 주머니에 넣은 다음 령주에게 말했다.
《지금 당신의 주머니에도 50Ft가 있고 나에게도 50Ft가 있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머리를 숙인단 말이요?》
모여섰던 사람들이 크게 웃어댔다. 령주는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허둥지둥 말했다.
《그럼 50Ft를 또 주겠소.》
시인은 그 50Ft마저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이제는 내 주머니에 100Ft가 있고 당신몸에는 단돈 한푼 없으니 규정대로 한다면 당신이 응당 나에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소?》

놀라운 교향곡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쯔 요세프 하이든(1732—1809)은 일생동안 교향곡 104편, 관현악 약 200편을 비롯하여 많은 음악작품을 창작하여 윈고전음악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그는 명실공히 《교향악의 아버지》였다. 그가 공연을 지휘할 때면 귀족들이 앞장서서 참가하군 하였으나 그들속에 진실로 교향악을 감상할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기에 그들은 음악소리가 울리자마자 끄덕끄덕 졸군 하였다.
그것을 아니꼽게 생각한 하이든은 특별히 《놀라운 교향곡》을 창작하였다. 이 곡의 첫 시작은 부드럽고 온화하여 귀족들이 달콤한 잠에 들기에 맞춤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갑자기 악대가 천둥을 울리는 소리를 내지르자 잠에 들었던 귀족들이 모두 놀라서 깨여났다.
그와 동시에 교향악도 끝나버렸다.

려 관 등 록

미국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선구자인 마크 트웨인(1835－1910)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미국사회의 반동적본질과 부패성을 날카롭게 폭로비판하였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권력과 재부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통치배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군 하였다.

한번은 마크 트웨인이 영국의 어느 한 려관에 묵게 되였다. 심부름군이 그에게 손님등록부를 가져왔다.

등록장부를 뒤적여보던 그는 자기보다 앞서 등록한 귀족의 필체를 보게 되였다.

《폰 부르트포드공작과 그의 수많은 하인들》

거만성이 드러나보이는 귀족의 려관등록수표를 읽어본 마크 트웨인은 히죽이 웃고나서 그아래에다 다음과 같이 휘갈겨썼다.

《마크 트웨인과 그의 수많은 사품들》

마크 트웨인의 사죄문

마크 트웨인은 언젠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국회안의 몇몇 의원들은 사생아들이다.》라고 말한적이 있었다.

온 국회가 발칵 뒤집혔다. 국회의원들은 련명으로 마크 트웨인에게 정식 사죄할것을 요구했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 기소하겠다고 위협해나섰다. 그는 즉시에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일전에 본인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을 가리켜 기생이 낳은 사생아들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나는 나의 그 말이 무조건적인 망발임을 인정하면서 그 망발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미국국회의원중 몇몇 사람은 기생이 낳은 사생아들이 아니다!》

백만장자의 가짜눈

미국의 한 백만장자가 오른쪽눈이 못쓰게 되여 병원에서 가짜눈을 해넣었다. 수술이 성공하여 진짜눈과 가짜눈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는 항상 자기의 가짜눈을 자랑하군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첨하며 말했다.

《당신의 오른쪽눈이야말로 왼쪽눈처럼 진짜같습니다. 눈빛이 예리하고 신비한게…》

한번은 그가 마크 트웨인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

《작가선생, 당신은 나의 어느쪽 눈이 가짜인지 알아맞힐수 있소?》

작가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 그자의 오른쪽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이 가짜눈이요.》

백만장자는 놀라서 물었다.

《당신말이 옳소. 그런데 어떻게 알아맞혔소?》

마크 트웨인이 량미간을 찌프리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의 왼쪽눈에는 아직 자비심이 다소 남아있으니까.》

부자의 영생

어느 한 백만장자가 이름난 발명가 에디슨에게 찾아와 《당신은 일종의 〈장수약〉을 연구하여 나에게 줄수 없는가요, 내가 장수할수 있게?》하고 물었다.

에디슨은 잠시 생각을 굴리고나서 말하였다.

《그건 매우 쉽지요. 당신의 금상을 주조하면 되지요.》

《그건 무슨 뜻이요?》

부자의 눈이 덩둘해졌다.

에디슨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인간세상에서 살고있소. 당신의 령혼은 실제상 존재하지 않는것이고 다만 당신의 육체와 돈이 존재할뿐이요. 만약 당신

이 자기의 금상만 주조해놓으면 육체는 죽어도 돈은 살아있게 되오. 이게 바로 영생이 아니겠소.》

의사의 자존심

이름난 화가 훼스레는 런던에서 살 때 한마리의 삽살개를 몹시 애지중지하였다.

그 개가 한번은 목구멍에 염증이 생겨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훼스레는 런던에서 제일 이름난 인후병의사인 모렐을 급히 청해왔다. 모렐은 솟구치는 모욕감을 애써 누르며 개에게 처방을 떼주고는 가버렸다. 그로부터 며칠후 훼스레는 모렐의 초청을 받았다.

그는 방에 들어서며 무슨 일로 자기를 찾았는가고 물었다. 모렐은 엄숙하게 말했다.

《큰일은 아니요. 다만 이름난 화가인 당신이 우리 집대문에 뼁끼칠을 좀 해주었으면 해서…》

《뭐라구요? 난 도색공이 아닌데요.》

《옳소. 나 역시 수의사가 아니란 말이요.》

재부를 부러워하지 않은 베토벤

한때 린쯔에서 약제사로 있던 베토벤의 동생은 나뽈레옹전쟁때 군대에 약을 공급하면서 크게 횡재하여 령지를 사게 되였다. 베토벤은 자기 동생의 이 성과에 놀라와하지 않았다.

어느해에 동생이 신년축하장을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표가 있었다.

《령지소유자 요한 판 베토벤》

작곡가는 회답장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수표하였다.

《지혜의 소유자 루드위히 판 베토벤》

의사협회를 조롱한 의사

영국의사협회는 영국시민들속에서 명망이 높은 의사 힐을 질투하면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괘씸한 생각이 든 힐은 그들을 한번 혼내워줄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당시 의학자들속에서는 타르물의 치료효과에 대한 론쟁이 맹렬히 벌어지고있었다. 힐은 이 타르물의 치료효과를 믿지 않았지만 의사협회 성원들의 대다수가 타르물에 대한 지지자들이였다. 힐은 가명으로 신문에다 글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인즉 어느 한 선원이 다리가 꺾어졌는데 자기가 타르물을 치료에 사용한 결과 성과적으로 완치되였다는것이였다.

의사협회는 이 글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글의 필자를 의사협회 성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힐은 이번에는 자기의 진짜 이름으로 신문에 또 다른 글을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처음으로 발표한 글에서 좀 수정해야 될것은 선원의 다리가 나무로 만든 다리였다는것입니다.》

누가 바보인가

짜리로씨야에서 어느 한 농민이 신소를 하려 군재판관을 찾아왔다. 그 재판관으로 말하면 이전에 그 농민이 사는 마을에서 일한 사람이였다.

재판관은 가난한 농민이 찾아온것을 시끄러워하며 멸시조로 물었다.

《왜 그러오? 당신네 마을엔 아직도 바보들이 그렇게 많소?》

그러자 농민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없으면 되오? 당신이 떠난 뒤로 한명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것이나 저것이나 갈고갈다

로씨야의 우화작가 크릴로브(1769－1844)는 젊었을 때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 하루는 크릴로브가 거처하고있던 집의 주인이 그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즉 거주자는 화재를 조심해야 하며 거주자의 잘못으로 집이 불타는 경우 부동산값으로 6만Rbl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크릴로브는 계약서에 수표하고 우에 지적된 수자에 동그라미를 두개나 더 붙여 600만Rbl로 만들어놓았다.

《자, 받소.》

미래의 우화작가는 말하였다.

《모든 조항에 동의하오.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 당신이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약수자를 600만으로 고쳤소.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것이 당신 마음에 들거요. 그러나 나로 말한다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지불할 능력이 없소.》

다수와 소수

버너드 쇼우(아일랜드출신 영국극작가, 1856－1950)의 연극 《피그말리언》의 첫 공연이 끝난 후 감동된 관중들이 작품을 쓴 작가 버너드 쇼우를 무대에 불러냈다.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연방 머리숙여 인사를 보내던 버너드 쇼우는 경탄의 목소리가 울리는 속에서도 누군가가 웨치는 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이 연극은 아무 쓸모도 없는것이요! 황당한것이란 말이요!》

그의 말에 쇼우는 이렇게 응대하였다.

《당신의 말에 나도 공감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소수를 차지한단 말이요!》

왕실이 주는 명예는 장난감과 같다

영국왕실과학협회는 뛰여난 발명과 발견을 한 과학자들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표창장과 회원증을 수여하였는데 이것은 영국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였다. 그러나 이름난 과학자들치고 이 표창을 바라고 과학탐구를 한 사람은 없었다.

뽈스까태생 프랑스물리학자 마리 퀴리(1867－1934)는 남편 삐에르 퀴리와 함께 방사능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라디움, 폴로니움을 발견하여 1903년에 남편과 함께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남편이 사망한 후 소르본느대학에서 최초의 녀성교수로 있으면서 금속라디움의 분리에 성공하여 1911년에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그는 명예와 재부를 탐내지 않고 오직 과학연구사업에만 전심하였다.

퀴리부인의 한 친구가 그의 집에 손님으로 왔을 때였다. 손님은 그의 딸이 영국왕실에서 수여한 금휘장을 가지고 노는것을 보고 내심 놀랐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퀴리부인, 영국왕실의 협회에서 수여하는 금휘장은 최고의 명예인데 어쩌면 이렇게 소홀히 건사할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명예는 한갖 장난감과 같은것이라는것을 알게 하고싶었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놀수는 있어도 영원히 지킬수는 없다는것, 이것을 모르면 아무러한 성과도 거둘수 없다는것을 알게 하고싶었어요.》

퀴리부인의 이 신념대로 교양받은 딸 이레느 퀴리는 그후 어머니의 모범을 따라 남편과 함께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하여 노벨상을 수여받았다.

모래바닥에 쓴 수표

미국의 이름있는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는 1936년 에스빠냐공민전쟁에 북아메리카신문련합 특파원으로 가서 반파쑈인민전선부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여기서 그는 장편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를 비롯한 여러권의 작품을 써서 이름을 날리였다.

1941년에 그는 꾸바의 아바나근처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뉴욕의 백만장자가 그를 방문하였다. 헤여지면서 백만장자는 헤밍웨이에게 기념수표를 요구하였다. 그의 방문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헤밍웨이는 모래판우에 자기 이름을 쓴 다음 《이것을 받아주시오. 가능하면 이 땅껍데기를 뉴욕에 가지고 가도록 하오.》하고 말하였다.

돈을 압박하고싶다

중국의 소설가인 유다부(1899－1945)가 한번은 군부에서 일하는 친구를 식당에 청하였다.

식사가 끝나자 급사가 료금을 받기 위해 다가왔다. 그런데 유다부는 신발깔개밑에서 지페 몇장을 꺼내여 급사에게 주는것이였다.

그 광경이 하도 괴이하여 친구가 물었다.

《유형, 돈은 왜 신발깔개밑에 감추었소?》

유다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물건짝이 줄곧 나를 압박하군 한다네. 그래서 난 반대로 내가 돈을 압박하고싶었을뿐이네.》